



제1장

국민 삶의 질 측정 2014

- 삶의 질 측정지표 개발결과 보고 -

이희길 · 심수진

제1절 서론

1. 추진연혁 및 내용

본 과제는 2009년부터 추진된 장기 프로젝트로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실무적용형 연구과제이다. 과제의 추진배경, 목적, 추진방법, 이전의 추진내용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작성된 연구보고서(한국사회학회, 2011)나 실행보고서(working paper)에 이미 충분히 설명(이희길 외, 2013)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보고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과제의 추진연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과제의 추진배경 중 하나는 ‘OECD 글로벌 프로젝트’인 ‘웰빙과 발전 측정’ 과제와 연관되어 있다. OECD 3차 세계포럼이 2009년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통계청은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국민 삶의 질 측정’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당시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통계청 내부에서 작성된 분석틀(-frameworks)과 측정방법에 대해 중립성과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통계청 내부에서 진행된 분석틀과 지표선정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는 한국사회학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는 5명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환경경제학자 및 심리학자가 참여하였고, 통계개발원 연구담당자도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여기에서 산출된 분석틀과 지표체계에 기반하여 2012~13년에는 미작성 지표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시된 지표체계 및 구성지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표통계의 정비 및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2013년에는 본 과제의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측정결과 공개여부, 통계청의 역할, 종합지수 산출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 과제를 2014년에도 계속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지난 6년간의 연구와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측정결과를 공개하였다. 따라서, 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까지 지나온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공개된 지표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결과도 요약해서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보고서 말미에는 향후 본 과제의 추진방향에 대해 간단히 제시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연구보고서의 성격보다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하는 실행보고서의 성격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2014년에 추진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013년에 두 번에 걸친 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였고, 2014년 6월 30일에 지금까지 생산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표공표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전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첫째 지표선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전에 운영(4월)하고, 11월에 추가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차례에 걸쳐 운영하였다. 둘째,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온라인 서비스 방안을 국가통계위원회 사회 제2분과에 안전을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우리청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절에서는 각각의 과정에서 추진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지표 공개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12개 영역에 81개이었으나, 실제 공개된 지표는 일회 측정값만 존재하는 11개 지표를 제외한 70개만을 공개하였다. 비록 공개지표의 수가 제한되었지만, 공개지표만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최근 분석을 간단히 수행하였다. 3절에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UNDP, OECD, UN 용역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국제비교 결과 드러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수준도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장기적 추진과제로서 본 과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표확충 등 측정체계 고도화, 온라인 서비스 개선 및 측정지표의 활용 강화 등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추진방법

‘국민 삶의 질 측정 2014’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2013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에 추진해온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공개하기에 앞서 기존 추진사항의 내용적인 측면의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와 동시에 측정결과 공개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추진하였는데 공개시점인 6월말에 맞춰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셋째로, 측정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내용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진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논란이 많은 지표선정 및 작성절차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4월에 민간위원 중심의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에 준비된 지표 구성안과 공개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지표선정의 중립성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다. 그리고, 외부전문가와 통계청 내 관련과를 대상으로 지표작성의 문제점을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을 6월에 진행하여 공개대상 지표값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에 국가통계위원회 사회제2분과에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방안’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표에 포함된 주요 관련부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8개 관련부처에 지표와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 지표와 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공개지표 70개를 선정하여 공개하게 되었다.

측정결과는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국민 모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였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방법을 결정한 것은 별도의 ‘종합지수’를 작성하지 않고 지표값만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표값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는 해외의 사례검토와 함께 제공정보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끝으로 측정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작성되어 최초로 공개된 만큼 학회나 심포지움을 통한 발표 및 외부 기고를 중심으로 ‘삶의 질 지표’의 구축을 알리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한국통계진흥원의 「통계의 창」에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소개하는 원고를 투고하고, 같은 기관에서 주최한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 컨퍼런스(11월)에서 ‘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조사연구학회(12월)에서 ‘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KDI에서 작성한 「2014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포함되었다.

제2절 추진내용

1. 측정결과 공개를 위한 준비작업

국민 삶의 질 지표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모든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및 검증

작업을 실시하였다. 검증방법은 개별지표들의 자료값 확인, 메타정보 정리, 시계열 안정성 검토, 인구하위 집단별 분해 가능성 검토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표검증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표검토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관련 부처와 청내외 전문가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가. 지표검토위원회 개최

삶의 질 지표는 측정범위와 정의가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측정목적이나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전체 영역구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 위주로 구성하거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혼합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가용한 많은 지표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지표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표선정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표선정의 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작업 또한 내부가 아닌 외부 학자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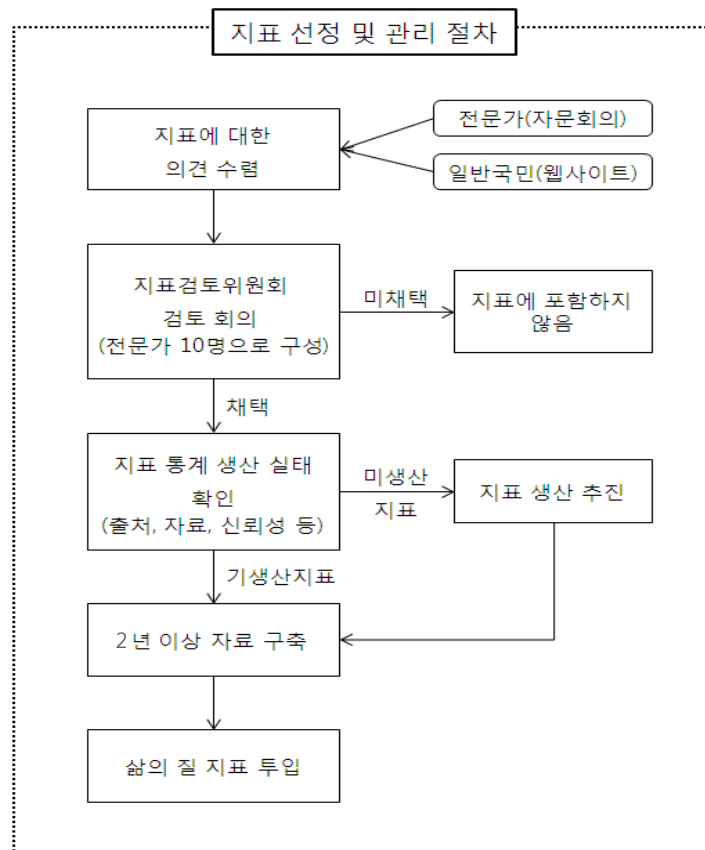
그러나 개별지표의 생산과정에서 구축이 불가능한 지표, 검토가 필요한 지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표선정 및 검토를 위해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지표검토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011년에 이루어진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였고, 위원들은 삶의 질의 구성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구성하였다(<표 1-1>).

<표 1-1> 지표검토위원회 구성인원

역할	성명	소속(분야)
위원장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11년 전체 지표체계 구축)
간 사	민경삼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장(업무소관부서, 당연직)
위 원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주관적 지표 분야)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경제분야)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보건분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노동분야)
	박중효	건국대 교육학과(교육분야)
	배 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문화, 여가분야)
	김중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환경분야)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사회분야)



지표검토위원회는 가능하면 1년에 2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여 지표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민간에서 제시되는 의견이나 부처, 외부 전문가 집단 등에서 제기되는 지표 관련 의견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지표의 삭제 및 추가 등의 지표개편 및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지표의 삭제나 변경, 신규지표 추가 등의 과정이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표검토위원회를 거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에 이것이 지표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선정과 관리절차를 표준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그림 1-1]).



[그림 1-1] 지표의 선정 및 관리절차

2014년의 1차 지표검토위원회는 4월 17일에 개최되었고, 위원장과 간사 포함 10명 중 7명이 참석하였다. 1차 지표검토위원회의 논의사항은 6월 온라인 서비스를 앞두고 지표제공과 관련된 전반을 검토하기 위함이었으며, 크게 공개대상 지표 선정과 자료공표방법을 논의하였다.

〈표 1-2〉 1차 지표검토위원회 개요

목적	'14년 6월 온라인 공표를 위한 제공지표 관련 검토
일시	2014. 4. 17(목), 16:00~18:00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참석자	- 10명 중 7명 참석 - 위원장, 간사 외 5명 위원 참석

세부적인 논의사항을 보면 첫째 공개대상 지표선정에서는 전체 지표를 모두 공개할 것인지 일정연도(2년 또는 3년) 이상 구축된 지표만을 공개할 것인지와 일부 지표의 산출 방식을 검토하였다. 둘째 자료공표방법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공연도와 기간을 현재 가능한 모든 기간의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시점부터 제공할 것인지, 또한 일정시점부터 제공할 경우 해당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자료의 보정(imputation)을 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요약하여 보여줄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논의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1차 지표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논의사항	결정내용
공표대상 지표선정	◦ 67종 제공가능지표 공표여부	◦ 66종 공표 및 일부 산식변경 - ‘에너지빈곤층비율’ 추가 논의 필요
	◦ 6종의 산식과 출처검토	◦ 2종 공표(가족접촉빈도, 하수도보급률) ◦ 3종 추가검토(공적연금가입률,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1종 공표 보류(범죄피해율)
	◦ 2회 미만 지표의 공표	◦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해 공표하지 않음
	◦ 재정취약가구 산출방식	◦ ‘적자가구비율’로 대체 또는 향후 산출방식의 검토 필요
공표방법	◦ 제공연도 및 기간	◦ '00년 이후부터 자료 제공 - 산출가능 지표수 및 자료의 신뢰성 고려
	◦ 자료의 보정여부	◦ 보정하지 않고 실제값만 제공 - 추정값이 실제값으로 오인 가능
기타	◦ 지표값의 증감여부 판단	◦ 판단이 애매한 지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판정



세부적인 논의내용은 첫째 공개대상 지표선정에 있어서 전체 83종의 지표 중 2년 이상 자료구축이 된 지표를 우선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단년도의 수치만으로는 지표값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변화정도를 알 수 없어서 개별 지표값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자료가 구축된 지표부터 우선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검토가 필요한 6개 지표의 산출방식과 출처를 검토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적연금 가입률: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현재의 산출방식은 '(공적연금가입자수/18세 이상 취업자수)×100'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가입대상자는 취업자가 아닌 만 18~59세 인구이므로 기존 산출방식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출방식을 '(공적연금가입자수/만18~59세 추계인구)×100'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학생 등의 인구가 모두 분모에 포함되고, 사적연금가입자는 제외되는 단점이 있지만,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시계열 변화 추세를 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②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하나의 지표값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요 만성질환 중 고혈압 유병률만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었으나, 주요 만성질환을 고혈압 하나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자료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대사증후군 유병률'¹⁾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매년 공표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안으로 만성질환 중 가장 중요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고혈압 유병률'과 '당뇨 유병률' 두 개의 지표로 각각 측정하고자 한다.

③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소득계층별로 의료미충족률에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통해 의료이용에서의 불평등을 측정하고자 전체 평균값이 아닌 불평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 차이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산식은 '소득수준 '하' 집단의 의료미충족률 - 소득수준 '상' 집단의 의료미충족률'로 산출하고자 한다.

④ 가족접촉빈도: 사회조사의 조사항목이 '따로 사는 부모님과과의 만남, 전화통화' 두 개 항목으로 질문하고 있어, 두 개 항목 중에서 타당도가 높은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만남의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화통화 빈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따로 사는 부모님과과의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비율을 합산하여 측정하고자 한다.²⁾

⑤ 범죄피해율: 범죄피해율 지표는 신고대상으로 집계되는 범죄율 통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여부를 떠나서 실제 범죄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적정한 자료출처에

1)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계 죽상동맥 경화증 등이 한 개인에게 세 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로 진단함.

2) 회의 때 논의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이 경우 90% 이상으로 나타나 변별력이 없으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전화통화하는 비율로 측정하고자 함.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가용한 자료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실태조사」의 경우 자료의 시계열, 측정방법의 적절성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2014년 자료가 산출되면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공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⑥ 하수도보급률 지역별 격차: 지역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산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별 격차를 보기 위해서는 시지역과 군지역의 보급률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 그리고 상위 10% 지역의 평균과 하위 10% 지역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위 10%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이미 100% 이므로 지역 간 격차의 비교와 하수도 보급률의 변화는 의미상 크게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복잡한 산식으로 산출하기보다는 하수도 보급률 지표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⑦ 재정취약가구: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채와 소비가 모두 포함된 지표가 필요하나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표체계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산출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둘째, 자료공표방법과 관련해서는 자료의 제공연도와 기간이 주로 논의가 되었다. 현재 지표의 자료구축현황을 보면 '95년부터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는 20여 개에 불과하나, '00년부터는 34개로 '00년을 전후로 하여 제공되는 자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자료의 신뢰도 또한 '00년을 전후로 하여 좋아지고 있으므로 자료의 제공은 '00년부터 하고자 한다.

'00년부터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표가 '00~'13년까지의 자료를 동일하게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자료가 '10년을 전후로 생산된 지표도 있으며, 최근 생산년도도 지표마다 동일하지 않다. 또한 지표별로 작성주기에서 차이가 있어 매년 작성되는 지표가 있는 반면, 2년 또는 3년,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지표들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공되는 지표의 값을 일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료가 없는 년도의 값을 내삽이나 외삽을 통해서 보정(imputation)해야 한다. 그러나 보정한 값은 참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업데이트될 경우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히 표시한다고 하여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보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수화는 하지 않고, 원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요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 자료값의 증감 정도만을 간단히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지표값의 증감은 개별 지표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명확하게 증가 또는 감소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지표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애매한 지표의 경우는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외에도 개별 지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을 보면, 금액과 관련된 지표들의 경우(균등화 중위소비, 균등화 중위소득, 순자산, 사교육비 등) 실질금액과 명목금액이



혼동되고 있어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경우 시계열 비교를 보는 만큼 실질금액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과 달리 중분류 체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 국가통계위원회 사회제2분과 개최

국민 삶의 질 지표 공표 전 최종검토를 위해서 국가통계위원회 사회제2분과를 개최하여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표 1-4>). 개최결과, 첫째 삶의 질 지표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수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제공방법과 관련해서 현재의 한국 사회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제비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존지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의 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신규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 지표에 있어서는 전체값보다 지역별, 성별 등 인구하위집단별 자료를 추가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처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지표검토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제시된 문제점들이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반영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지표에 대해서 국제비교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별, 성별 등의 인구하위집단별로 자료가 구축되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자료 중에는 아직 하위집단별로 구축가능한 지표가 몇 개 없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표 1-4> 국가통계위원회 사회제2분과 개최 개요

안건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일시	2014. 6. 12, 14:00~16:00
장소	경인지방통계청 2층 대회의실
참석자	- 홍두승 위원장 등 분과위원 7명 - 분과위원(통계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이버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 덕성여대 통계학과 교수)

다. 부처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이후 관련 부처와 통계청의 작성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현재 공표 지표와 관련있는 부처인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처의견 수렴결과, 공표 전까지 반영가능한 부분 즉 내용에서의 오류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등은 반영하였고,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기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표 1-5>).

<표 1-5> 부처의견수렴 결과

부처	지표명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고
여성가족부	한부모가구비율	한부모가구가 삶의 질 하락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한 분석 필요	미반영	
교육부	학업중단율	정확한 정의 및 해석시 주의사항 제시	반영	
	PISA 백분위 순위	단순합산한 백분위 순위를 제시하지 말고 원자료 그대로 활용	미반영	비교를 위해 백분위 순위 필요
	그외 교원 1인당 학생수, GDP대비 공교육비율 지표 필요			
고용노동부	근로자평균 근로소득	- 지표명 변경(근로자 평균 임금) - 출처 변경: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사업체노동력조사	미반영	
	근로시간	- 지표명 변경(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 출처 변경: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사업체노동력조사	미반영	
국토교통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지표정의 및 의의, 업데이트 연도 수정	반영	

주: 미반영된 부분은 제2차 지표검토위원회(14년 11월)에 상정하여 논의함

이와 함께 국민 삶의 질 지표 공표를 위한 최종 검토를 위해서 지표값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는 홈페이지 서비스 전 공개될 지표값 및 메타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일부 지표명의 변경, 실질금액으로 변경, 정의 및 의의 등의 메타정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자료의 산출방식에서 문제시되었던 두 개 지표(재정취약가구, 오존주의보 발령횟수)³⁾는 현재 수준에서 개선사항이나 적절한 산출방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3) 재정취약가구는 현재 지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측정방법, 출처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지표구성에서 제외함.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1995년부터 작성되었으나 전국대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주요 도시에서 시작해 확대된 것으로 시기별로 측정된 도시의 숫자가 다르므로 발령횟수의 증감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의 타당성이 낮으므로 지표체계에서 제외함



지표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바로 반영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2차 지표검토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1-6〉 지표 최종검토 결과

	지표 및 내용
지표명 변경	건강보정수명: 건강수준별 기대여명으로 변경 고등교육기관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로 변경 선거참여율: 투표율로 변경 온실가스 배출량: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변경 환경문제불안도: 기후변화 불안도로 변경
산식변경	실질금액 사용: 월평균 사교육비, 근로소득 평균여가시간: 주행동시간으로 변경
출처변경	한부모가구 비율: 센서스에서 추계가구로 변경
지표삭제	재정취약가구(명확한 정의와 산출가능한 자료 부재)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매년 측정 도시가 동일하지 않아 타당도 낮음)
추가 논의 필요	아동학대피해경험률(신고사례이며, 다른 지표와 연령기준이 다름) 근로시간(자영업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지표출처 변경 필요) 유치원 취원율(보육시설 이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영 필요) 1인당 평균 여행일수(해외여행일수 포함 필요) 환경영역의 중분류 변경 검토 필요(다른 영역과 달리 세분화) 정치관심(현재 가용한 지표는 정치관심이 아니라 정치 효능감 측정항목임으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제2차 지표검토위원회(14년 11월)에 상정하여 논의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최종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물질적 영역과 비물질적 영역을 포함하는 12개 영역에, 객관적 지표 57개, 주관적 지표 24개를 포함하여 모두 81개 지표로 확정되었다(<표 1-7>), 이 중 2년 이상 자료가 구축된 70개 지표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 공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현 시점(2014년 6월)에 공표되지 않은 지표는 모두 11개이다.⁴⁾ 시민참여 영역의 경우 전체 8개 지표 중 5개가 미공개 지표이며, 주관적 웰빙 영역 또한 전체 2개 지표 모두 미공개 지표이다. 그 밖에 주거, 건강, 가족과 공동체, 안전 영역에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시민참여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거의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미공개 지표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생산되는 대로 지표값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4) 주거환경 만족도,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지역사회 소속감,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시민적 덕목, 대인신뢰, 기관신뢰,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경험의 균형

〈표 1-7〉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57종)	주관지표 (24종)	
물질 부분	소득·소비·자산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고용·임금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사회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주거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주거환경 만족도(+)	
비 물질 부분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건강행위 및 환경	비만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교육	교육기회	유치원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 중단율(-)	-
		교육자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교육성과	PISA 백분위 순위(-),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문화활동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
	가족· 공동체	가족관계	가족집중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
		사회적관계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
		공동체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참여	정치참여	투표율(+)	정치관심(+), 정치 효능감(+)
시민적 의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시민적 덕목(+)	
시민적 권리		-	부패인식지수(+)	
신뢰		-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범죄	강력범죄 발생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산업재해율(-), 화재 발생건수(-), 도로 사망률(-)	-	
환경	에너지	에너지 빈곤층 비율(-)	-	
	대기	미세먼지 농도(-)	-	
	물	하수도 보급률(+)	-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비율(+)	-	
	기후변화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불안도(-)	
	환경의 질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체감 환경 만족도(+)	
주관적 웰빙	-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경험의 균형(+)	

주: 1) 밑줄 친(이텔릭체) 11개 지표는 현재 1회 자료값만 있어 변화추세 판정이 불가능하고 신뢰성 검증 필요하여 공개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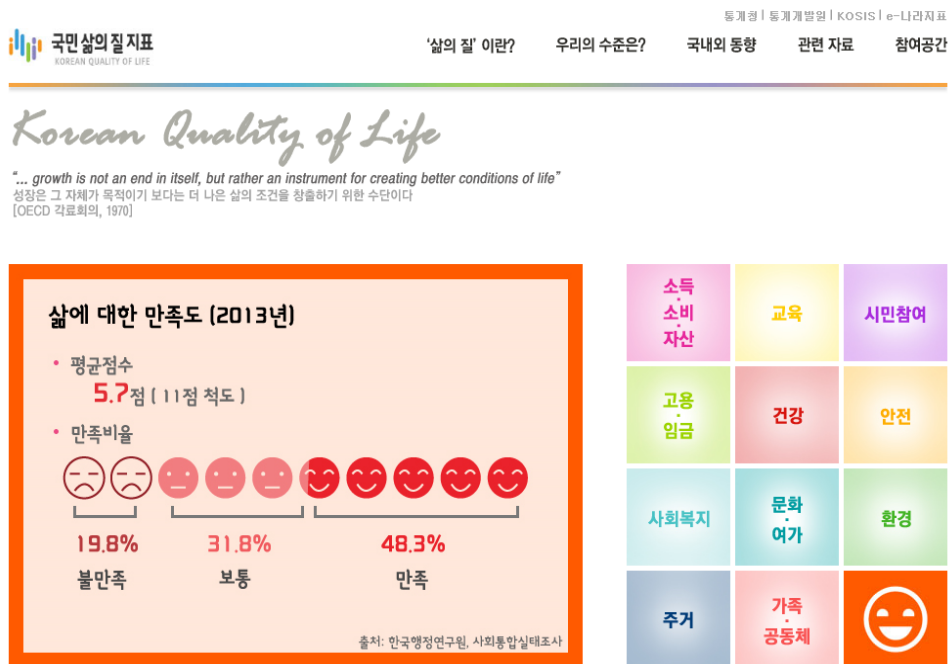
2)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2.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홈페이지는 삶의 질 측정 지표뿐 아니라 삶의 질 측정의 국내외 연구사례, 최근 동향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통합포털 사이트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홈페이지에서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는 크게 다섯 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되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삶의 질 이란?’, 둘째, 삶의 질의 영역별 지표체계와 개별 지표에 대한 그래프, 지표값,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은?’, 셋째,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사례들을 보여주는 ‘국내외 동향’, 넷째,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작성된 연구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이 링크되어 있는 ‘관련 자료’, 마지막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질의 사항이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참여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메인페이지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구성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보여 주고자 하였다. 삶의 질이 1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12개 영역을 보여주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들에 대한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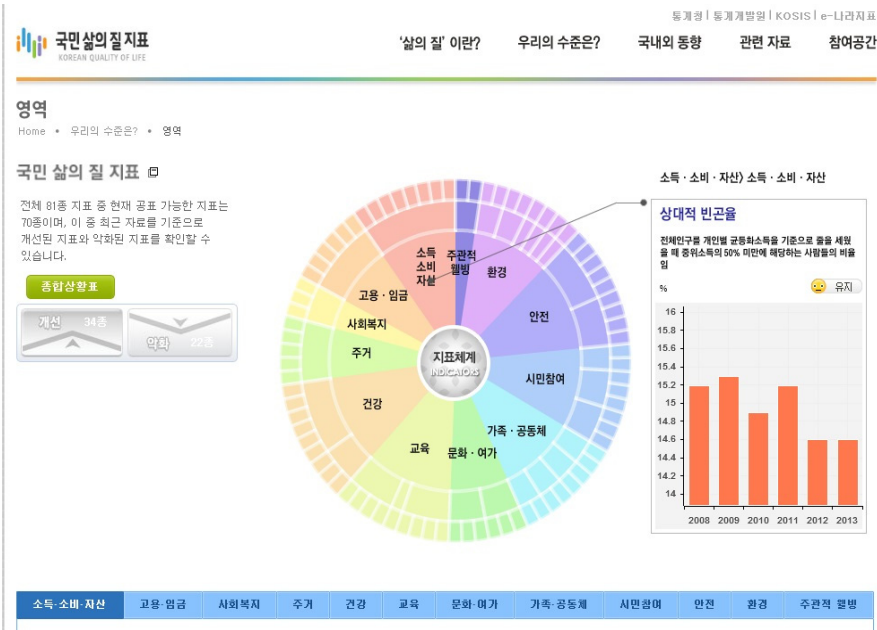


[그림 1-2] 국민 삶의 질 지표 메인 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개 영역에 대한 이미지와 개별 지표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부각시키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삶의 질이란?’ 콘텐츠는 삶의 질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측정목적과 연혁, 프레임워크, 지표선정방법, 활용방안 등의 네 개의 하위 카테고리 구성된다. ‘측정목적과 연혁’에서는 삶의 질의 측정배경, 목적, 정의, 그동안의 추진연혁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삶의 질이 어떠한 측정틀(프레임워크)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들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각 영역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이 정리되어 있다. ‘지표선정방법’에서는 지표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선정기준, 지표선정방법과 절차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지표선정 및 검토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지표선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활용방안’에서는 삶의 질 지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자료를 제공하고, 이 자료가 정책부서, 시민사회, 과학공동체에서 다양하게 활용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우리의 수준은?’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별 지표체계와 개별 지표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영역’과 ‘지표’의 하위 카테고리 구성된다. ‘영역’ 카테고리에서는 휠을 통해서 전체 삶의 질을 구성하는 12개 영역과 영역별 지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그림 1-3]). 휠을 통해서 하위 영역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개별 지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개하고 있는 지표수와 함께 공개지표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 전년대비(2년 주기 이상의 경우 그 이전 자료와 비교) 지표값의 증감정도를 통해서 개선되는 지표와 악화되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전체지표의 종합상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 영역별로 하위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영역별 의미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포함되는 지표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지표’ 카테고리에서는 영역별로 개별 지표에 대한 지표값과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표값은 2000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지표의 방향과 최근의 증감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개별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의 그래프와 함께 간단한 메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메타정보에는 지표의 정의, 산식, 출처, 업데이트 시기, 의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엑셀로 개별 지표의 지표값과 함께 메타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1-3] ‘우리의 수준은?’ 의 영역 페이지 화면



[그림 1-4] ‘우리의 수준은?’ 의 지표 페이지 화면

세 번째 ‘국내외 동향’은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정리해놓은 것으로 크게 측정동향, 국내사례, 해외사례로 구성된다. ‘측정동향’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연구 동향을 연대기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2009년 스티글리치 보고서를 전후로 하여 국가별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사례’는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례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다. 현재 국가단위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작성하는 사례와 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작성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는 측정과 관련된 간략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해당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어놓았다. ‘해외사례’는 국가통계청에서 국가단위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와 국제기구에서 작성되는 사례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 현재 OECD의 BLI(Better Life Index)가 처음에 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국가별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사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최신 소식’은 삶의 질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이나 소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페이지로 최근의 연구동향이나 신문 기사, 세미나 소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국내외 동향의 해외사례 페이지 화면



네 번째 ‘관련자료’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통계개발원에서 작성된 보고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개최한 포럼의 발표자료, 그리고 삶의 질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되는 2011년 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올려져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향후 삶의 질과 관련된 보고서나 연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외부에서 삶의 질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보고서나 연구사례 등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관련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공간’은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페이지로 기존의 삶의 질 지표 구성의 top-down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성한 페이지이다. 영국통계청에서도 웰빙 측정 지표구성 시 웹사이트를 통한 의견제시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표의견수렴’은 국민들이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며, 향후 분기나 반기별로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지표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자주하는 질문’은 삶의 질 지표와 관련된 주요 질문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로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시해 놓음으로써 쉽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페이지인데 현재는 진행되는 조사 없이 빈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지표나 영역에 대한 중요도 평가, 국민의견을 수렴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측정지표 검토 및 보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언론이나 국회에서 제기된 지표 관련 의견들과 기존에 부처나 내외부 전문가 검토 시 반영되지 않아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2차 지표검토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하였다.

〈표 1-8〉 2차 지표검토위원회 개요

목적	기존 지표에 대한 관련부처, 언론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검토
일시	2014. 11. 26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참석자	- 10명 중 7명 참석, 3명 서면검토 - 위원장, 간사 외 5명 위원 참석(3명은 서면으로 의견 제시)

안건은 기존에 관련부처와 내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논의 중 추가검토가 필요한 지표와 공표 후 언론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졌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부에서 제기한 ‘근로시간’ 지표의 작성출처에 대한 변경, 언론에서 제기된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지표의 타당성 검토, ‘유치원 취원율’ 지표의 경우 보육 시설 아동의 포함여부 검토, ‘PISA 백분위순위’의 작성방법 검토,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신규추가, ‘1인당 국내여행일수’ 지표의 경우는 해외여행 포함여부, ‘시민적 덕목’과 ‘정치효능감’의 경우 측정방식과 정의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제기한 ‘한부모 가구 비율’ 지표의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논의 결과, ① ‘근로시간’ 지표의 경우 현재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변경하여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지표의 경우 주거비용을 보여주는 지표 중 현재 선택가능한 지표는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와 ‘연소득대비 주택임대비’ 지표이며, 이 두 지표 모두 전체가구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의 지표가 자산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주거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가 증가할수록 주거비용이 증가하므로 삶의 질에 있어 부정적인 지표임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의 지표명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지표명을 변경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③ ‘PISA 백분위순위’ 지표의 경우 백분위로 환산하는 순위가 실제 순위와 동일하지 않고 일반인이 보기에 혼란의 여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측정시기마다 나라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나오는 국가를 20-30개국 정도로 한정해 놓고 그 안에서 순위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추가적으로 상위와 하위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PISA 형평성 지표를 추가하여 보여주면 교육의 수월성 측면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④ ‘유치원 취원율’의 경우는 현재 유치원만 취학률에 포함되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이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 OECD 교육지표에서는 ‘유치원+보육’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거나 또는 작성방법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⑤ 교육부에서 신규지표로 검토요청이 들어온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현재 공교육비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뿐 아니라 공교육에 들어가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의 삶의 질 지표가 대부분 산출(outcome)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 지표의 경우 투입(input) 지표로 지표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이다.



⑥ ‘1인당 국내여행일수’ 지표의 경우 현재 국내여행만 포함되어 있어 증감여부가 실제 여행일수의 증감인지, 해외여행으로의 이동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여행일수와 해외여행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⑦ ‘시민적 덕목’과 ‘정치 효능감’ 지표의 경우는 두 지표 모두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나 지표명으로는 지표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명의 변경이 필요한 지표이다. ‘정치 효능감’ 지표는 정치유능감, 정치역량감, 정치영향력인식도 등으로, ‘시민적 덕목’은 시민의식 등으로 검토 가능할 것이다.

⑧ ‘한부모 가구 비율’ 지표의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기된 의견이 삶의 질의 방향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웰빙을 고려한다면 삶의 질에 있어서 부정적인 지표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으로 한부모 가족과 시설아동의 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표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표검토위원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환경 영역의 경우 중분류가 현재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재 6개⁵⁾의 중분류를 환경의 질과 환경서비스/자원의 2개 중분류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또한 환경 영역 지표 중 ‘폐기물재활용비율’과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의 경우는 개인이나 한국 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지표임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단체 참여율’ 지표의 경우는 사회단체라는 용어 때문에 시민단체에 한정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실제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래 지표의 정의에 맞도록 지표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면 공동체 참여율 등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긍정적/부정적 정서 경험의 균형’ 지표도 마찬가지로 지표명으로 어떤 지표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지표명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표 1-9>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지표의 산출여부나 시계열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도 있고, 바로 변경이 가능한 것도 있다. 추가적인 지표의 검토 이후 각각의 논의결과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지표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 에너지, 대기, 물, 폐기물, 기후변화, 환경의 질

〈표 1-9〉 2차 지표검토위원회 개최결과

영역	안건	논의 결과
노동	근로시간 지표 작성방법 변경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용
주거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타당성 검토	주거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임으로 지표명을 이에 맞게 변경
교육	PISA 백분위순위 작성방법 검토	공통으로 포함된 국가로 한정하여 순위 산정 (단순평균)
	유치원 취원을 작성방법 검토	유치원과 함께 보육시설 이동수를 포함하는 지표로 대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추가	국가비용뿐 아니라 개인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투입 측면의 지표임으로 적절하지 않음
문화 여가	1인당 국내여행일수 작성방법 검토	해외여행일수도 포함하여 1인당 여행일수로 변경
시민 참여	시민적 덕목, 정치효능감	지표가 측정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지표명 변경
가족 공동체	한부모 가구 비율 타당성 검토	한부모 가족과 시설아동 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표로 대체 검토
환경	지표 삭제(폐기물재활용비율,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산업활동 관련 지표로 삶의 질과 연관성 낮음

제3절 측정결과

여기서는 현 수준에서 ‘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아직도 81개 측정지표 중 70개 지표만 공개된 상태라 완전한 측정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만 측정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금까지 국제기구 등에서 진행된 관련 측정결과도 동시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측정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81개의 지표 중에서 현시점에서 2회 이상의 측정값이 존재하는 공개된 지표는 총 70개로, 11개는 2015년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2000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지표를 온라인으로 제공(<부록> 참조)하였는데, 지표별 최초 생산년도와 생산주기, 최근 생산년도의 차이⁶⁾로 인해 전체 기간에 걸친 동향(trends)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최근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기와의



변화 추세를 단순히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공개지표(70개) 중 비교대상 전기 대비 개선 35개(50.0%), 보합 13개(18.6%), 악화 22개(31.4%)로 전반적으로 개선 지표가 과반을 차지했다. 31.4%에 달하는 악화지표도 동시에 목격되어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가용한 지표만으로 보면 국민 삶의 질은 최근 개선추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추세를 부문별로 보면, 물질 부문(21개)에서는 개선지표가 66.7%(14개), 악화가 28.6%(6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비물질 부문(49개)도 개선지표의 비중(42.9%, 21개)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물질부문에 비해 악화(32.7%, 16개) 및 보합(24.5%, 12개) 지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국민 '삶의 질'의 개선이 경제적 생활조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물질적인 사회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미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0〉 국민 삶의 질 영역별 최근 변화추세

	영역	전체 지표수	공개 지표수	최근 변화추세		
				개선(▲)	보합(≈)	악화(▼)
물질적 부문	소득소비·자산	8	8	5(62.5%)	1(12.5%)	2(25.0%)
	고용·임금	6	6	5(83.3%)	0(0.0%)	1(16.7%)
	사회복지	3	3	2(66.7%)	0(0.0%)	1(33.3%)
	주거	5	4	2(50.0%)	0(0.0%)	2(50.0%)
	소계	22	21	14(66.7%)	1(4.8%)	6(28.6%)
비물질 적 부문	건강	9	8	2(25.0%)	2(25.0%)	4(50.0%)
	교육	9	9	5(55.6%)	2(22.2%)	2(22.2%)
	문화·여가	6	6	4(66.7%)	0(0.0%)	2(33.3%)
	가족·공동체	8	7	2(28.6%)	2(28.6%)	3(42.8%)
	시민참여	8	3	1(33.3%)	1(33.3%)	1(33.3%)
	안전	9	8	4(50.0%)	2(25.0%)	2(25.0%)
	환경	8	8	3(37.5%)	3(37.5%)	2(25.0%)
	주관적 웰빙	2	-	-	-	-
소계	59	49	21(42.9%)	12(24.5%)	16(32.7%)	
전체	-	81	70	35(50.0%)	13(18.6%)	22(31.4%)

6) 현재 공개되어 있는 70개 지표의 최근 연도별 자료구축 현황은 '13년이 39개, '12년 25개, '11년 이전 6개로 상이하고, 생산주기도 지표별로 연간 44개, 2년 21개, 3~5년 5개로 서로 달랐다.

7) 지표별 추세판정 기준은 지표가 삶의 질에 미치는 방향(±)을 고려하여 판정하였다.

최근변화율 > $\frac{1}{2}$ |평균변화율|이면 개선 혹은 악화로 판정하고, 최근변화율 ≤ $\frac{1}{2}$ |평균변화율|이면 보합으로 판정하였다.

영역별 비교에 앞서 전체 81개 지표 중 미공개 지표수(11개)가 많은 주관적 웰빙, 시민 참여 영역은 현실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영역을 제외하고 생활영역별로 보면 전체 대비 개선의 비율이 높고 악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은 고용·임금(개선 83.3%, 악화 16.7%), 소득·소비·자산(개선 62.5%, 악화 25.0%), 사회복지 및 문화·여가(개선 66.7%, 악화 33.3%), 교육(개선 55.6%, 악화 22.2%) 영역을 들 수 있다. 반대로 전체 비율에 비해 개선비율은 낮고 악화비율이 높은 영역으로는 건강(개선 25.0%, 악화 50.0%)과 가족·공동체(개선 28.6%, 악화 42.8%), 환경(개선 37.5%, 악화 25.0%) 영역을 들 수 있다. 전체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영역은 안전(개선 50.0%, 악화 25.0%)과 주거(개선과 악화 모두 50.0%) 영역이다. 이 결과도 국민 삶의 질의 개선이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및 사회복지와 같은 물질적 생활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부문에서는 문화·여가, 교육 정도만 최근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건강과 가족·공동체 영역은 오히려 악화추세를 보인다.

영역별로 개별 지표의 변화 추세판정(<표 1-11>)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개선 영역인 고용·임금 영역은 6개 지표 중 저임금근로자비율 지표만 최근 악화되었고 나머지 5개 영역은 모두 개선 추세이다. 소득·소비·자산 영역도 균등화 중위소비와 가구평균 순자산은 전기 대비 악화되었으나 상대적 빈곤율은 보합세이고 나머지 5개는 모두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족·공동체 영역의 악화 추세는 한부모 가구비율의 증가, 독거노인 비율의 상승, 사회적 관계망의 악화 등 사람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 간의 접촉빈도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고, 사회단체 참여율도 개선 추세이다. 건강 영역도 지속적인 기대여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증가, 개인의 주관적 건강 평가 악화, 신체 활동 실천율의 하락 및 계층별 의료미충족률의 증가로 전체로는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부문 중 개선영역인 교육은 9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개선(유치원 취원율, PISA 순위, 고등교육 이수율, 사교육비, 학교교육의 효과)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개선추세이나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어 객관적 상황과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여가도 전체적으로 개선추세이며 국내 여행일수, 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이 증가 추세이고 이에 따라 문화여가 지출비율도 증가세이다. 하지만 평균 여가시간은 감소세이고 생활시간 부족을 겪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부문 중 주거 영역은 주거면적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지표는 개선추세인 반면,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와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안전 영역은 도로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화재발생 건수 등의 객관적 사고는 보합 혹은 개선추세이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주관적 평가나 불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1〉 개별지표별 최근 추세판정 결과 종합('14년 9월 기준)

부분	영역	지표	추세	영역	지표	추세
물 질 적 부 문	소득 · 소비 · 자산	1인당 GNI	▲	고용 · 임금	고용률	▲
		균등화 중위소득	▲		실업률	▲
		균등화 중위소비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가구평균 순자산	▼		근로시간	▲
		지니계수	▲		저임금근로자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일자리 만족도*	▲
		소득만족도*	▲			
	사회 복지	소비생활 만족도*	▲	주거	1인당 주거면적	▲
		공적 연금 가입률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통근·통학 소요시간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	
비 물 질 적 부 문	건강	기대수명	≈	교육	유치원 취원율	▲
		고혈압 유병률	▲		고등교육 이수율	≈
		당뇨 유병률	▼		평생교육 참여율	▼
		주관적 건강평가*	▼		학업 중단율	▲
		스트레스 인식정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비만율	▲		PISA 백분위 순위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대졸생 취업률	≈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학교교육의 효과*	▲
	문화 · 여가	평균 여가시간	▼	가족 · 공동체	학교생활 만족도*	▼
		여가활용 만족도*	▲		가족접촉 빈도	▲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		가족관계 만족도*	≈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		한부모 가구비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독거 노인비율	▼
	시민 참여	문화여가 지출 비율	▲	공동체	자살률	≈
		투표율	▲		사회적 관계망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사회단체 참여율	▲
	환경	부패인식지수*	▼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
		에너지 빈곤층 비율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미세먼지 농도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하수도 보급률	≈		도로 사망률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기후변화 불안도*	▲		산업재해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화재발생 건수	▲		
	체감 환경 만족도*	▲				

주: 1) 표는 주관지표를 의미

2) 최근추세는 지표별 최종생산연도 및 비교대상 연도의 시점이 다르므로 해석 시 유의

3) (판정기준) 지표방향(±)을 고려 '개선/악화': 최근변화율 > 1/2 |평균변화율|, '보합': 최근변화율 ≤ 1/2 |평균변화율|

2. 국제기구 측정결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정사례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의 현주소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삶의 질이나 행복 측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비교를 실시하는 사례가 민간이나 국제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측정 사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핵심 개념은 삶의 질과 웰빙 및 행복 등으로 다양하고 측정지표들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관심은 기존의 경제지표를 넘어서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국제비교 측정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비교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영역별로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함께 주관적인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OECD의 BLI(Better Life Initiative), 그리고 주관적인 만족도와 평가만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측정방법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특징과 위치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1)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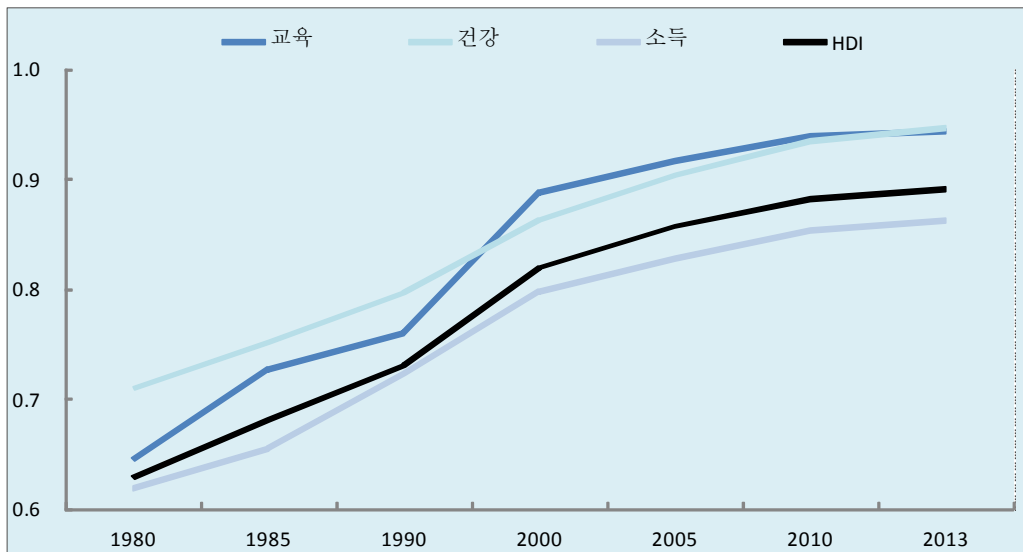
UNDP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DI)의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HDI 작성의 이론적 근거를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웰빙측정에서 HDI의 철학적 기초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역능(capability)’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역능은 어떤 것이나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능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재화(goods)는 단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개념으로 인해 웰빙 측정에서의 관심이 “무엇을 가졌는가” 대신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론적 배경에서 개발된 HDI는 인간개발의 기초적인 세 차원, 즉 오래 살고 건강한 삶,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양질의 생활수준 접근에 대한 발전을 평가하는 요약적 척도이다.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은 기대수명으로 측정되고, 지식에 대한 접근은 평균 교육년수(25세 이상 인구의 생애평균 교육년수)와 학교입학 자녀의 기대 교육년수로 측정된다. 한편 생활수준은 2011년 기준 PPP 환산된 1인당 GNI로 측정된다.

이들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된 HDI 값의 변화를 통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자. 구성요소별로 출생 시 기대여명은 1980년 66.1세에서 2013년 현재 81.5세로 무려 15.4세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평균 교육년수도 4.5년 증가하였고 기대 교육년수도 5.4년이나 증가하였다. 한편 1인당 GNI(2011년 PPP\$ 기준)는 1980년 \$6,031에서 2013년 \$30,345로 무려 403.2%나 급증하였다. HDI 구성요소별 지수값의 변동([그림 1-6] 참조)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사회는 모든 구성 요소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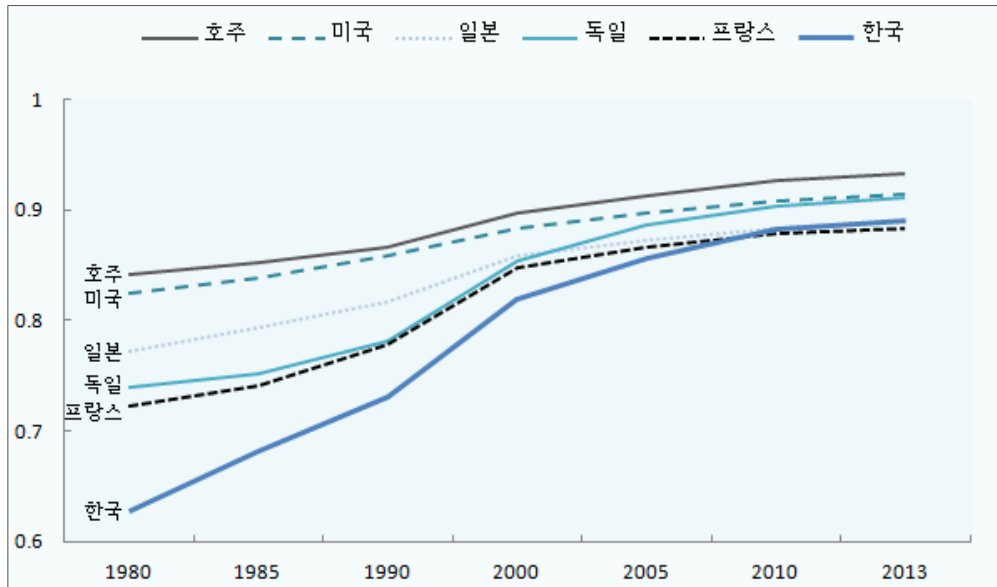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의 HDI 및 구성요소별 지수값의 시계열 추이

그 결과 한국의 HDI 값은 1980년 0.628에서 2013년에는 0.891로 최상위 인간개발 국가의 평균(0.890) 수준이다. 0.800 이상이 최상위 인간개발 국가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1995년 0.780에서 2000년에 0.819로 이 기준을 넘어섰고 최상위 인간개발 국가의 평균에 근접한 시점은 2010년경이다. HDI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의 개선은 세계 평균적 개선 속도에 비해 두드러진다. 1980년도에 한국(0.628)과 세계평균(0.559)은 0.069의 차이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그 차이가 0.189로 증가하였다. 또한 최상위 국가와의 차이를 보면 1980년대는 최상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평균이 0.129 낮았으나 2013년에는 같은 수준이다. 이는 HDI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질 개선이 다른 경쟁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1980년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전후에 선진국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였다.

〈표 1-12〉 한국의 시기별 HDI 및 구성요소 값의 변화

	기대 여명	기대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1인당 GNI (2011 PPP\$)	HDI 값		
					한국	세계	최상위 ¹⁾
1980	66.1	11.6	7.3	6,031	0.628	0.559	0.757
1985	68.9	13.1	8.2	7,697	0.681	-	-
1990	71.7	13.7	8.9	11,987	0.731	0.597	0.798
1995	73.9	14.7	10.0	16,549	0.780	-	-
2000	76.1	16.0	10.6	19,636	0.819	0.639	0.849
2005	78.7	16.5	11.4	23,989	0.856	0.667	0.870
2010	80.8	16.9	11.8	28,252	0.882	0.693	0.885
2011	81.0	17.0	11.8	29,111	0.886	0.698	0.887
2012	81.3	17.0	11.8	29,654	0.888	0.700	0.889
2013	81.5	17.0	11.8	30,345	0.891	0.702	0.890

주: 1) 지수값에 따라 세계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때 0.800 이상을 최상위로 구분
출처 : UNDP(2014)



[그림 1-7] 한국과 주요국가의 HDI 값의 시계열 추이



2013년 측정결과를 보면 187개국(평균 0.702) 중에서 한국의 HDI는 0.891로 세계 15위의 최상위 인간개발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호주(0.933), 미국(0.914), 독일(0.911) 보다는 낮으나 일본(0.890) 및 프랑스(0.884)와 유사한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0.87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HDI 구성요소별로 보면 한국의 기대여명은 12위, 평균 교육년수는 19위, 기대 교육년수는 8위로 전체 순위와 큰 차이가 없으나 1인당 GNI는 33위로 낮은 편이다.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기대여명은 한국이 1.5세 높은 수준이고 교육은 평균 교육년수는 비슷하나 기대 교육년수는 우리가 1.3년 높다. 그러나 1인당 GNI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6,000 가량 낮은 수준이다.

〈표 1-13〉 주요국가의 HDI 및 구성요소의 값과 국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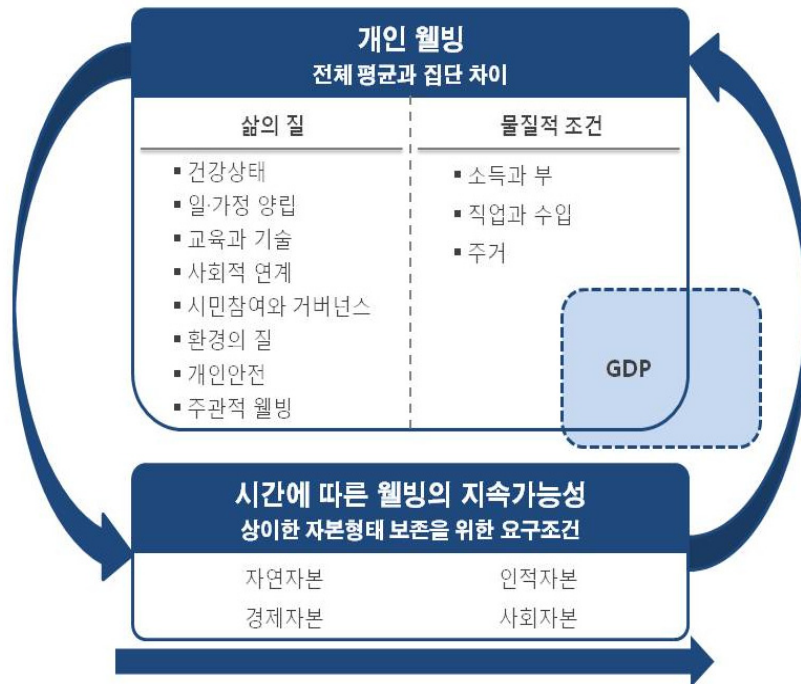
	HDI		기대여명		평균 교육년수		기대 교육년수		1인당 GNI	
	값	순위	값(년)	순위	값(년)	순위	값(년)	순위	값(\$)	순위
노르웨이	0.944	1	81.5	13	12.6	4	17.6	6	63,909	6
호주	0.933	2	82.5	4	12.8	3	19.9	1	41,524	20
미국	0.914	5	78.9	36	12.9	2	16.5	13	52,308	11
독일	0.911	6	80.7	20	12.9	1	16.3	18	43,049	14
캐나다	0.902	8	81.5	14	12.3	10	15.9	25	41,887	19
영국	0.892	14	80.5	23	12.3	9	16.2	21	35,002	27
한국	0.891	15	81.5	12	11.8	19	17.0	8	30,345	33
일본	0.890	17	83.6	1	11.5	26	15.3	42	36,747	24
프랑스	0.884	20	81.8	10	11.1	32	16.0	24	36,629	25
이탈리아	0.872	26	82.4	5	10.1	52	16.3	18	32,669	29
최상위	0.890	-	80.2	-	11.7	-	16.3	-	40,046	-
OECD	0.876	-	80.0	-	11.4	-	15.7	-	36,628	-
세계전체	0.702	-	70.8	-	7.7	-	12.2	-	13,723	-

출처 : UNDP(2014)

2) OECD BLI

웰빙과 발전에 대해 측정하고 있는 OECD BLI는 스티글리츠위원회의 권고(2009)와 국제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개념적 측정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그림 1-8] 참조). 이 측정들의 특징은 첫째, 개인이나 가구와 같은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상황이 어떠한가에 주목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국가의 경제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인이나 가구가 경험하는 웰빙 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OECD(2013),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1-8] OECD BLI의 개념적 측정틀

둘째, 이 접근법은 투입이나 결과가 아닌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웰빙의 최종적 성과(outcomes)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수도물을 위한 예산이나 수도관 길이가 아닌 수도물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전체 인구 집단의 평균적 성취와 함께 웰빙의 분포를 고려한다. 연령, 성 및 사회경제학적 배경과 같은 차이에 주목한다. 넷째, 웰빙의 객관적 측면과 함께 주관적 측면도 동시에 강조한다. 환경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함께 이들 환경에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평가도 보완적 정보로 중요하기 때문이다(OEC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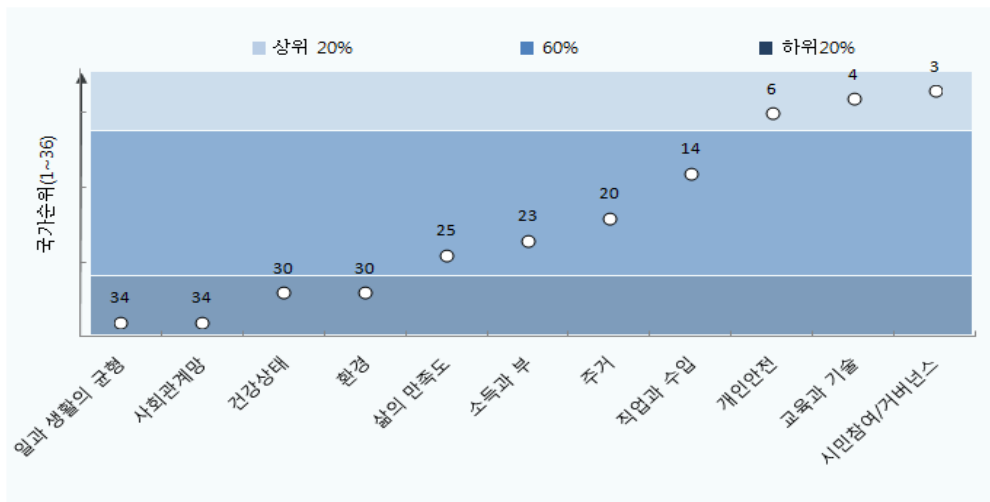
이런 측정틀에 기반해서 OECD는 2011년부터 격년제로 발표하고 있는 11개 영역, 즉 주거, 소득과 부, 직업과 수입, 사회 관계망, 교육과 기술, 환경, 시민참여/거버넌스,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24개 지표를 포함한 웰빙지수인 BLI(Better Life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비교대상 국가는 34개 OECD 회원국에 러시아와 브라질이 포함된 36개국으로, 2014년 BLI에서 한국의 국가 순위는 36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여 2013년의 27위에서 2단계 상승하였다. 동일가중치를 적용한 지수에서 국가별 순위는 호주는 3년 연속 1위이고, 다음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순으로 북유럽 국가가 높았고, 캐나다(5위), 스위스(6위), 미국(7위)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터키(36위), 멕시코(35위), 그리스(34위)의 웰빙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11개 영역별 한국의 순위를 보면 전년에 이어 시민참여(2012-2013-2014년; 11→3→3위), 교육(7→4→4위), 안전(10→10→6위) 영역에서 상위 20%에 분포되었으나 일과 생활의 균형(33→33→34위), 사회 관계망(35→34→34위), 건강(33→31→30위), 환경(29→29→30위)의 영역에서 하위 20%에 위치하였다. 이어서 삶의 만족(25위), 물질적 생활조건을 보여주는 소득과 부(23위), 주거(20위), 직업과 수입(14위)은 중간 60% 순위에 위치되었다.

개별 지표별로 보면, 순위가 높은 지표는 주거영역에서 주거지출(2위), 직업과 수입에서 직업안정성(4위) 및 장기실업률(1위), 교육과 기술에서 학생의 기술(2위), 시민참여/거버넌스에서 '규칙제정에서의 협의'(6위)를 들 수 있다. 반대로 순위가 낮은 지표로는 지원관계망의 질(34위), 대기의 질(33위), 자기보고 건강상태(35위), 장시간 근로자(34위)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9] BLI 영역별 한국의 순위 비율

〈표 1-14〉 BLI의 영역 및 지표별 한국 순위

영역		지표명	지표 순위	영역 순위
물질적 조건	주거	주거관련지출(Housing expenditure)	2/36	20위 (중간 60%)
		기준시설을 갖춘 주거(Dwelling with basic facilities)	28/36	
		개인당 방수(Number of rooms per person)	24/36	
	소득과 부	가구당 금융순자산(Household financial wealth)	19/36	23위
		가구당 순가처분소득(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26/36	
	직업과 수입	직업안정성(Job security)	4/36	14위 (중간 60%)
		개인소득(Personal earnings)	20/36	
		고용률(Employment rate)	22/36	
장기 실업률(Long-term unemployment rate)		1/36		
삶의 질	사회 관계망	지원관계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	34/36	34위 (하위 20%)
	교육과 기술	기대교육기간(Years in education)	18/36	4위 (상위 20%)
		학생들의 기술(Students skills)	2/36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18/36	
	환경	수질(Water quality)	27/36	30위 (하위 20%)
		대기의 질(Air quality)	33/36	
	시민참여/ 거버넌스	규칙제정에서의 협의(Consultation on rule-making)	6/36	3위 (상위 20%)
		투표 참여율(Voter turn-out)	12/36	
	건강상태	자기보고 건강상태(Self-reported health status)	35/36	30위 (하위 20%)
		기대수명(Life-expectancy)	15/36	
	삶의 만족	삶에 대한 만족도(Life-Satisfaction)	25/36	25위 (중간 60%)
	개인 안전	살인률(Homicide rate)	18/36	6위 (상위 20%)
		폭행 피해율(Assault rate)	7/36	
	일과 생활의 균형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25/36	34위 (하위 20%)
장시간 근로자(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34/36		

3) UN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UN의 세계행복보고서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삶의 객관적 조건이 아닌 주관적 웰빙 즉, 행복(happiness)을 측정하고 있다. 행복 측정을



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서적인 차원으로 “어제 얼마나 행복을 느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긍정적/부정적 정서경험을 통해서 측정되고, 두 번째는 평가적인 차원으로 “전체 삶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만족)한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에 조사된 결과들을 활용하여 국가별로 만족도(삶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2012년 발간된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행복 측정과 관련된 이용가능한 다양한 출처의 자료 소개와 국가별/지역별⁸⁾ 측정값, 자료의 타당성과 행복의 원인, 이론적인 논의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3년에 발간된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국가별/지역별 행복측정 결과와 나라별 차이, 설명, 정책적인 활용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2년 보고서는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유럽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세계 10개 지역별(156개국) 삶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분포 차이와 함께 각 나라별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갤럽세계조사의 2005-11년 결과에 따르면 삶에 대한 평가⁹⁾는 156개 국가 중 56위이나, 긍정적 정서경험의 비율은 94위, 긍정/부정 정서경험의 균형은 98위로 각각 나타났다. 우리는 삶에 대한 평가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이 더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삶에 대한 평가와 정서경험의 차이는 지역별 순위에서도 나타나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삶에 대한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정서경험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경험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보다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삶에 대한 평가와 정서경험 균형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15〉 삶에 대한 평가와 정서경험의 상하위 5개 국가 비교(갤럽세계조사, 2005-11년)

	삶에 대한 평가	긍정/부정 정서경험 균형
상위 5개 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라오스, 아일랜드, 파나마,
하위 5개 국가	토고, 베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에라리온, 부룬디	이라크, 아르메니아, 팔레스타인, 토고, 시에라리온
한국	56위/156개국	98위/156개국

8) 보고서에서는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전 세계를 크게 1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와 ANZ(호주와 뉴질랜드),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동남아시아, 중동부 유럽, 독립국가연합, 동아시아,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9) 삶에 대한 평가는 ‘Cantril Ladder’로 측정된 결과로, 자신의 삶을 사다리에 비교했을 때 최상의 상태를 10점, 가장 안 좋은 상태를 0점으로 측정하는 척도임.

2013년 보고서에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갤럽세계조사를 활용하여 과거와 최근 각각 3년간의 자료를 합산¹⁰⁾하여(2005-07년과 2010-12년) 변화추세를 10개 지역별,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다. 2010-12년의 삶에 대한 평가(Cantril Ladder)는 세계 평균이 11점 척도(0~10점)에서 5.16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6.27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1.11점 높으며, 156개 국가 중 41위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나라로는 스페인(6.322), 일본(6.064), 이탈리아(6.021) 등이 있다.

덴마크가 7.69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호주가 상위 10위를 차지하고 있어 북유럽국가의 행복정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행복정도를 보여주는 국가는 토고(2.94점)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낮은 행복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지역의 평균(7.493점)은 하위 10개 지역의 평균(3.682점)보다 약 3.8점 높다. 한국의 경우는 상위 10개 지역의 평균보다 약 1.22점 가량 낮게 나타났다. HDI의 2013년 순위와 비교해보면 상위권에 포함되는 나라들은 거의 유사한 편이나,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¹¹⁾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코스타리카의 경우 2013년 HDI 순위는 68위이나 삶에 대한 평가는 2010-12년 12위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1-16〉 삶에 대한 평가 상하위 국가(갤럽세계조사, 2010-12년)

	삶에 대한 평가	평균
상위 10개 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호주	7.493
하위 10개 국가	토고, 베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귀니야, 코모로스, 시리아, 세네갈	3.682

2005-07년과 비교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삶에 대한 평가는 0.024점 증가하였다. 한국은 2005-07년 5.54점에서 2010-12년에 6.27점으로 0.73점 증가하여 53위에서 41위로 개선되었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삶에 대한 평가는 덴마크가 지속적으로 1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10) 갤럽세계조사는 매년 국가별 1,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 국가별 타당한 평균값 산출을 위해 3년치 결과를 평균으로 산출함.

11) 독일(HDI: 6위, 삶에 대한 평가: 26위), 미국(HDI: 5위, 삶에 대한 평가: 17위), 일본(HDI: 17위, 삶에 대한 평가: 43위), 이탈리아(HDI: 26위, 삶에 대한 평가: 45위)



긍정적 정서경험의 경우는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삶에 대한 평가와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를 제외하고 삶에 대한 평가에서 순위가 높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긍정적 정서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삶에 대한 평가는 2005-07년보다 개선되었지만, 긍정적 정서경험은 0.669에서 0.661로 감소하여 89위에서 96위로 낮아졌다. 긍정적 정서경험은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들 간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2010-12년 34개국 중 삶에 대한 평가는 24위를 긍정적 정서경험은 26위를 차지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5-07년과 비교해보면 세계 전체에서 긍정적 정서경험의 순위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삶에 대한 평가(27위→24위)와 긍정적 정서경험(29위→26위) 모두 증가하였다. OECD 국가들 중 한국보다 낮게 나타나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체코, 터키,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 있다.

〈표 1-17〉 삶에 대한 평가와 정서경험의 국가별 점수와 순위

	삶에 대한 평가				긍정 정서			
	05-07년	순위 (135)	10-12년	순위 (156)	05-07년	순위 (135)	10-12년	순위 (156)
노르웨이	7.416	7	7.655	2	0.832	15	0.823	29
호주	7.310	9	7.350	10	0.834	13	0.820	31
미국	7.364	8	7.082	17	0.828	18	0.844	20
독일	6.508	27	6.672	26	0.752	52	0.799	41
캐나다	7.445	5	7.477	6	0.853	6	0.872	8
영국	6.886	18	6.883	22	0.820	24	0.845	18
한국	5.540	53	6.267	41	0.669	89	0.661	96
일본	6.367	31	6.064	43	0.735	58	0.789	47
프랑스	6.813	20	6.764	25	0.774	42	0.770	55
이탈리아	6.712	22	6.021	45	0.697	75	0.648	104
덴마크	7.926	1	7.693	1	0.844	8	0.776	52
아일랜드	7.144	14	7.076	18	0.878	1	0.859	12
코스타리카	7.258	11	7.257	12	0.872	3	0.886	4
세계전체	5.134	53/135	5.158	41/156	0.878	89/135	0.725	96/156
OECD	6.633	27/32 ¹⁾	6.662	24/34 ¹⁾	0.764	29/32 ¹⁾	0.767	26/34 ¹⁾

주: 1) 해당 시점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순위를 나타냄

4) 국제비교 사례 요약

이 절에서 검토한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각 사례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기서 검토한 사례들이 측정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사례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중심으로 측정되는 UNDP의 HDI,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OECD의 BLI, 주관적인 삶에 대한 평가만으로 비교한 UN의 세계행복보고서로 구분된다.

각각의 상이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를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HDI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인간개발이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178개국 중 15위로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되어 우리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이미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OECD 국가 평균(0.876)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주관적 만족도 측정값을 포함하고 있는 지표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UN의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비교 국가수는 HDI보다 작지만 국가순위는 41위로 더 낮게 나타나고, 세계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가지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LI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OECD 국가만을 한정해서 비교해보면, HDI의 경우는 14위로 나타나 상위 50% 이상이지만 BLI와 세계행복보고서의 결과는 각각 25위, 24위로 비슷한 수준이다. 즉, OECD 국가 중 HDI만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마저 불평등을 조정하면 하위권이다. 그리고 객관지표를 중심에 두고 주관지표를 보완한 BLI도 하위권이고, 주관적 웰빙의 측정 결과 모두 하위권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153개국 중 41위 수준이다.

〈표 1-18〉 각 지표별 한국의 순위 비교

	HDI(2013)		BLI(2014)	세계행복보고서 (2010-2012)
	HDI	IHDI		
세계 평균	0.702	0.541	-	5.16
OECD	0.876	0.758	-	6.66
한국	0.891	0.736	-	6.27
한국 순위	세계	15/187	-	41/153
	OECD	14/34	-	24/34

주: 1) IHDI는 불평등을 고려한 HDI로 집계하지 않은 국가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순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2)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값임



이상의 국제비교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 즉 소득, 교육정도, 건강수준 등은 거의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유사한 소득수준과 객관적 조건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역별 만족도나 정서적 경험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OECD의 BLI 지표체계는 지표 선정과정에서 전체 영역에 걸쳐 불평등을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UNDP도 2010년부터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IHDI)를 발표하고 있다. 불평등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주의 경향이 강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많이 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불평등이 개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객관적인 조건(15위)에 비해 불평등 조정 IHDI의 결과(33위)를 보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불평등 조정과정에서 순위 변경이 매우 심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평등으로 인한 삶의 질 수준의 하락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세부 영역별로 보면 교육성취 정도나 경제상황, 기대수명은 상위수준이나, 공동체와의 관계정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나 일과 생활의 균형, 일상생활에서의 활기, 목적의식, 자율성 등 또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즉 삶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는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4절 향후과제

1. 측정체계 고도화

‘국민 삶의 질 측정’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국제적으로도 삶의 질 측정은 매우 도전적이고 논쟁적인 과제로 측정방법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에 지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협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적 태도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체계를 고도화하고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의 유사한 노력이 진행되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측정 방법인 지표체계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표통계는 가장 타당해서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활용 가능한 다른 대안적 방법이 없어 대리로 활용한 지표도 있다. 따라서, 보다 개선된 지표 통계가 생산된다면 이를 대체함으로써 지표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통계역량이 개선된다면 지표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홈페이지 업데이트

측정결과의 공개방법으로 별도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선택한 것은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여 ‘국민 삶의 질 측정’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공유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질 측정은 도전적인 과제로 지식축적과 경험의 공유가 필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공유와 자료제공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연구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취지로 구축된 사이트에 제공정보의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15년에 제공될 미공개 지표 11개 자료를 추가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미제공 지표이지만 추가 공개를 통해 81개 지표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제공하는 지표자료에 대해 인구집단별 세분화된 정보, 즉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국제비교 자료 등의 추가제공 가능 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사례에 대한 보다 다양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현재 국제적으로도 확산 추세로 새롭게 시도되는 해외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시도되는 광역 및 기초단체의 측정사례, 청소년, 노인, 농민 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측정사례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민간연구소의 측정결과나 측정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보제공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국내에서 본 사이트가 삶의 질이나 웰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측정결과 활용강화

현재 제공되는 측정지표가 아직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본 제공 지표가 다음과 같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의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는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 노력한 결과가 실제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정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본 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질 측정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측정과정에서 가중값을 둘러싼 가치중립의 훼손 문제로 종합지수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지표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활용하여 학계 등에서 종합지수화 작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종합지수는 그 독특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전상인(2008), “앵그리 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철학과 현실』 76호.
- 한국사회학회(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용역보고서
- 이희길·심수진·박주언·배현혜(2013),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통계개발원 하반기 연구보고서
- Gallup·Healthways (2014), State of Global Well-being.
- Noll, Heinz-Hervert (2004),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Genov, Nicolai Ed.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Wiesbaden: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 OECD(2005),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OECD, Paris.
- OECD(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Stanton(2007), “The Human Development Index : A History”,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eds. (2012) World Happiness Report.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eds. (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UNDP(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UNDP, UN Plaza, New York.
-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UNDP.



<부록> 지표정의서

1.1.1 1인당 GNI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국민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산출되는 실질 GNI를 한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구함. 실질 GNI(국민총소득)를 총인구(추계인구)로 나눈 값으로 측정함
지표 측정방법	1인당 GNI = 실질 GNI(2010년 기준) ÷ 추계인구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2013년(2010년 기준), *1970년(2005년 기준)
출처1	한국은행, 국민계정
지표 의의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실질 GNI는 국민의 소득 수준을 시계열로 비교하는데 유용하고 이러한 비교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1.1.2 균등화 중위소득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소득순위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 이때 개인의 소득은 소속가구의 전체 소득을 동일한 금액으로 소속 가구원들에게 균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이나노인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도 소득을 배분받아 전체 인구 소득순위 줄세우기에 참여
지표 측정방법	균등화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비소비지출 *균등화처리방법: 가구의 전체소득을 소속가구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구 전체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전국가구)
출처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표 의의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등화 중위소득은 지니계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계층 비율 등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

1.1.3 균등화 중위소비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중위소비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소비지출 순위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의 소비지출을 의미 이때 개인의 소비지출은 소속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을 동일한 금액으로 소속가구원들에게 균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이나 노인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도 소비지출을 배분받아 전체인구 소비지출 순위 줄세우기에 참여
지표 측정방법	소비지출이란 가구의 가계지출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것을 의미 소비지출 = 가계지출 - 비소비지출 *가계지출에는 자산구입지출과 같은 항목은 제외 *비소비지출이란 세금, 사회보험료, 지불이자, 기부금, 가구간이전지출 등을 의미 *균등화처리방법: 가구의 전체소득을 소속가구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구전체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공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전국가구)
출처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표 의의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음.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도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

1.1.4 가구평균 순자산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가구평균 순자산은 가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금액의 평균으로 측정됨 (실질화된 금액)
지표 측정방법	가구평균 순자산 = 가구의 평균자산 - 가구의 평균부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2010년 기준)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0년
출처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지표 의의	평균적인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구평균 순자산을 통하여 가구의 재산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구의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음. 가구의 재산 증감과 각 자산 및 부채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 상태가 소비에 영향을 주므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음



1.1.5 지니계수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
지표 측정방법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 *로렌츠곡선: XY평면의 X축에 사람들을 소득순위로 줄을 세우고 Y축에 이들의 균등화 누적소득을 표시했을 때 X와 Y가 서로 만나는 점들을 연결하여 그린 곡선 *완전균등선: XY평면의 원점에서 45도 대각선으로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를 의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전국가구)
출처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표 의의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지니계수 시계열을 통해 국가의 소득분배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국가 간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비교도 가능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과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2가지 종류 지니계수 작성을 통해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음 *소득분배정책의 개선효과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1.1.6 상대적 빈곤율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를 개인별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
지표 측정방법	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미만 인구 ÷ 전체인구) × 100 *중위소득: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소득순위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 *균등화처리방법: 가구의 전체 소득을 소속 가구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구전체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 *가처분소득 기준임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전국가구)
출처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표 의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사회의 질 측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

1.2.1 소득만족도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소득만족도는 소득이 있는 조사대상자 중 본인의 소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질문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됨 *만19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격년으로 조사되는 소득만족도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만족, ② 약간만족, ③ 보통, ④ 약간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소득만족도 =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1999~2013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별도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1.2.2 소비생활 만족도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조사 대상자 중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됨 *만19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격년으로 조사되는 소비생활 만족도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만족, ② 약간만족, ③ 보통, ④ 약간불만족, ⑤ 매우불만족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소비생활 만족도 =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1999~2013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임



2.1.1 고용률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p>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특정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p> <p>*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함</p> <p>*생산가능인구는 조사대상주간을 기준으로 한국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인 자로 현역 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의무경찰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수감자 등은 제외함</p>
지표 측정방법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3~2013년
출처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표 의의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 이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주목하였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최근에는 고용률을 노동시장의 현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지표로도 고용률이 주로 사용됨

2.1.2 실업률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p>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로 측정됨</p> <p>*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p> <p>*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일을 즉시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p>
지표 측정방법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2013년
출처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표 의의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실업률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취업의사는 있으면서 취업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로 의미가 있음

2.1.3 근로자 평균 소득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임금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받는 소득의 월평균금액으로 측정됨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지표 측정방법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 소득을 집계하여 평균한 값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2010년기준)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
출처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지표 의의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은 노동의 질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요한 지표이며, 근로자 보다 전취업자(근로자와 비근로자 포함)의 평균 소득이 더욱 유용한 자료이나 현재 자료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평균 소득으로만 한정하여 파악함

2.1.4 근로시간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 근로시간으로서, 정상근로시간뿐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등 초과근로시간을 모두 합친 것임
지표 측정방법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월간 총 근로시간으로 측정함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
출처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지표 의의	더 짧은 노동시간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여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으로,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바, 이것을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월간 총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1개월에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하는 지를 나타내주는 지표 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에 따라서 증가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크면 줄어들게 됨



2.1.5 저임금 근로자 비율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 근로자의 비율임
지표 측정방법	저임금근로자 비율 = [(임금이 임금중위값의 2/3보다 적은 임금근로자의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8~2012년
출처1	OECD, OECD.Stat.
지표 의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이며 국제비교 지표로도 흔히 사용됨.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 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함

2.2.1 일자리 만족도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일자리 만족도는 취업인구 중 현재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됨 *만15세 이상 취업자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조사되는 근로여건 만족도 항목을 이용하여 산출함. 설문항목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만족, ② 약간만족, ③ 보통, ④ 약간불만족, ⑤ 매우불만족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일자리 만족도 =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이라는 응답을 합한 비율로 측정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9~2013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임금 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지표는 이러한 하위 지표들을 측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질문한 것으로 근로생활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지표임

3.1.1 공적연금 가입률

영역명	사회복지
지표 정의	만18~60세 미만 인구 중 군인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가입자의 비율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가입 대상기준이 만18~59세 국민임
지표 측정방법	공적연금 가입률 = (공적연금가입자수 ÷ 만18~59세 추계인구)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6~2013년
출처1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계청, 추계인구
지표 의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공적연금 가입비율은 사회안전망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3.1.2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영역명	사회복지
지표 정의	OECD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사회복지지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법정민간지출을 합하여 산출됨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 지출(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고용주의 법정급여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 휴가급여)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요금감면
지표 측정방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지출 금액 ÷ GDP)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0~2011년
출처1	보건복지부, 행정통계 (OECD 제출 통계자료)
지표 의의	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비율은 전체 사회의 사회복지 정책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이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로 의미가 있음



3.1.3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영역명	사회복지
지표 정의	<p>전체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로 측정됨</p> <p>*국민의료비: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p> <p>*공공의료비: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p> <p>*민간의료비: 개인본인부담, 민간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p>
지표 측정방법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민간의료비 ÷ 국민의료비) x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0~2012년
출처1	보건복지부, 2011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지표 의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의료복지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에 따라 사회의 의료복지제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4.1.1 1인당 주거면적

영역명	주거
지표 정의	1인당 주거면적은 가구가 사용하는 주거 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이며, 물리적 주거 밀도를 비교할 수 있어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임
지표 측정방법	<p>「주거실태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주거면적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가구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 전용 사용면적에 대해서 조사함</p> <p>1인당 주거면적 = 가구의 주거전용 사용면적 ÷ 가구원수</p>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6~2012년
출처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지표 의의	한국은 가구원수가 감소하여 1인당 주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주거면적보다는 1인당 주거면적이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을 정확하게 나타내며, 국제비교에서도 활용성이 높음

4.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영역명	주거
지표 정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로 측정됨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 가구(개정된기준('11.5.27)을 적용)
지표 측정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 총가구수)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6~2012년
출처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지표 의의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1인당 주거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양적인 크기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한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임

4.1.3 통근·통학 소요시간

영역명	주거
지표 정의	평균 통근시간이란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 시간을 의미함 통근인구란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말함. 평균 통학시간은 통학인구가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통학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아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를 포함함
지표 측정방법	평균 통근시간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소요시간 계급별 통근인구 자료로부터 산출함(단, 통근시간 120분 이상 계급은 120~150분 계급으로 설정하여 그 계급값을 135분으로 가정함). 평균통학시간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소요시간 계급별 통학 인구 자료로부터 산출함 $\text{평균통근시간} = \frac{\sum \text{계급값}_i \times \text{도수}_i}{\text{총도수}}$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5년, 1995~2010년
출처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지표 의의	출퇴근(통학) 시간은 개인의 하루 일과 중 매일 반복되는 시간으로 장시간 출퇴근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통근·통학시간은 교통편의시설, 직장(학교)과의 거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음



4.1.4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영역명	주거
지표 정의	주택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로 측정됨. PIR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짐을 뜻함
지표 측정방법	$PIR = [\text{중위(평균) 주택가격} \div \text{중위(평균) 연소득}]$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6~2012년
출처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지표 의의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 목적 이외에도 투자의 목적이거나 신분상승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목적 때문에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주택가격은 개인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임

4.2.1 주거환경 만족도

영역명	주거
지표 정의	주택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 환경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측정됨
지표 측정방법	「주거실태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주거환경 만족도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귀택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 측정항목 중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만족의 5점 척도로 조사 되었음 주거환경만족도 = '매우만족'과 '만족'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12년(2012년 이전은 4점 척도로 시계열 비교 불가)
출처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지표 의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 주변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며, 거주 계층과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또는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이나 계획에 활용 가능한 지표임.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에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주거 환경 만족도는 국민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5.1.1 기대수명

영역명	건강(건강상태)
지표 정의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임
지표 측정방법	통계청이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매년 작성하는 생명표의 '연령별 기대여명' 중 '0세의 기대여명'으로 산출함 *생명표란 현재의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출생집단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령별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정리한 표임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70~2012년
출처1	통계청, 생명표
지표 의의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구성되며, 사망수준은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기대수명이 사용됨. 기대수명은 영아사망률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여명'으로 지칭됨

5.1.2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영역명	건강(건강상태)
지표 정의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으로 측정됨
지표 측정방법	유병기간으로 산출한 건강수준별 기대여명(유병기간 제외)으로「사회조사」의 유병기간으로 계산한 유병률을 생명표의 정지인구에 가중하여 산출(sullivanmethod) *연령별 정지인구: 정확한 연령 x 세에서의 생존자들이 x + n세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연수의 합계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12년
출처1	통계청, 인구동향과(생명표와 사회조사를 가공하여 산출)
지표 의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적을수록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며,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고,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 비교에 널리 이용됨



5.1.3 고혈압 유병률

영역명	건강(건강상태)
지표 정의	<p>주요 만성질환 중 고혈압에 대한 연간 의사진단 유병률(만30세 이상)</p> <p>*만성질환은 보통 6개월 혹은 1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을 말하며, 급성질환과 대응한다. 그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장기간 지속하므로 만성질환이라 함(주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골관절염, 중이염, 영구치우식증)</p> <p>*유병률은 우리나라 인구 중 해당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하며, 사망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5차 개정)에 의한 사망원인별로 연앙인구 100,000명당 연간 국내거주 총 사망자수의 비율을 나타냄</p>
지표 측정방법	<p>전체 조사대상자수 중 고혈압 유병자의 비율(만30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p> <p>*고혈압 유병률: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한 분율</p>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8~2013년
출처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표 의의	고혈압 유병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위협 만성질환의 유병을 간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함

5.1.4 당뇨 유병률

영역명	건강(건강상태)
지표 정의	<p>주요 만성질환 중 당뇨병에 대한 연간 의사진단 유병률(만30세 이상)</p> <p>*만성질환은 보통 6개월 혹은 1년이상 계속되는 질환을 말하며, 급성질환과 대응한다. 그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장기간 지속하므로 만성질환이라 함(주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골관절염, 중이염, 영구치우식증)</p> <p>*유병률은 우리나라 인구 중 해당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하며, 사망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5차개정)에 의한 사망원인별로 연앙인구 100,000명 당 연간 국내거주 총사망자수의 비율을 나타냄</p>
지표 측정방법	<p>전체 조사대상자수 중 당뇨 유병자의 비율(만30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p> <p>*당뇨 유병률: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비율</p>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8~2013년
출처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표 의의	당뇨 유병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위협 만성질환의 유병을 간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함

5.1.5 비만을

영역명	건강(건강행위 및 환경)
지표 정의	비만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kg/m ²)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로 측정됨
지표 측정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검진조사를 통한 직접 계측방식으로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비만율(연령표준화) =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사람수 ÷ 만19세 이상 조사대상수) × 100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 ²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8~2013년
출처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표 의의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형성된 건강위험 요인으로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 섭취, 그리고 신체활동의 부족 등 일상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발생함.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는 달리 비만은 산업구조와 생활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아직 선진국만큼 비만율이 높지 않지만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

5.1.6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영역명	건강(건강행위 및 환경)
지표 정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임
지표 측정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신체활동 관련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산출함. 신체활동 실천율은 만19세 이상의 조사대상자 중 ① "최근 1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매우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이나"는 물음에 3일 이상이라고 대답하고, 이러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루에 보통 20분 이상 했다고 대답했거나, ②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이나"는 물음에 5일 이상이라고 대답하고, 이러한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루에 보통 30분 이상 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임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2년
출처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표 의의	신체활동은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크며, 신체활동은 대중적이란 측면에서 전문적인 운동(스포츠)과 차이가 있고, 신체 전반의 근육을 단련하고 심폐 기능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동작만을 반복하는 노동과도 다름. 걷기, 달리기, 줄넘기,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일정한 강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5.1.7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영역명	건강(건강행위 및 환경)
지표 정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비율의 소득계층별 차이로 측정됨 *의료적 필요는 구체적으로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로, 의료기관은 병의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만19세 이상 대상
지표 측정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의료이용 항목으로 측정됨. 설문항목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으며, 응답범위는 '예, 아니오'로 조사되었음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소득계층 '하'집단의 의료미충족률 - 소득계층 '상'집단의 의료미충족률 *소득계층구분: 상, 상하, 중하, 하 *의료미충족률: 의료기간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3년
출처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표 의의	사회의 의료복지 및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리적, 시간적 등의 이유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함께 건강불평등을 보여주는 사회의 질 지표임

5.2.1 주관적 건강평가

영역명	건강(건강상태)
지표 정의	개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됨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건강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로 조사되었음 주관적 건강평가 =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1999~2014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의료환경 이외에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건강수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5.2.2 스트레스 인식정도

영역명	건강(건강상태)
지표 정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됨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스트레스 정도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 많이 느꼈다, ② 느낀 편이다, ③ 느끼지 않은 편이다, ④ 거의 느끼지 않았다로 조사되었음 스트레스 인식정도 = '매우 많이 느꼈다'와 '느낀 편이다'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8~2012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개인들의 건강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측정되며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6.1.1 유치원 취원율

영역명	교육(교육기회)
지표 정의	유치원 취원 적령인구(만5세) 중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 측정됨 우리나라의 경우 취학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재학중인 학생수로 산출하기 때문에 취학률이 100%일 경우도 발생함
지표 측정방법	유치원 취원율 = [유치원재원 학생수 ÷ 취학적령인구(만5세 추계인구)] × 100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소속된 원아수는 제외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0~2013년
출처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지표 의의	교육기회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교육기회가 해당되는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공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임. 한국 사회에서 초중등단계의 교육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음



6.1.2 고등교육 이수율

영역명	교육(교육기회)
지표 정의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
지표 측정방법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기관 이수자 ÷ 25~64세 인구) × 100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대학 등을 포함하며, OECD 기준 Tertiary education을 나타냄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7~2011년
출처1	OECD, Education at a glance
지표 의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사회의 교육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가별 비교 시 많이 활용되며,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과 함께 교육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6.1.3 평생교육 참여율

영역명	교육(교육기회)
지표 정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5~64세 이하 성인들 중에서 평생교육(형식,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됨 *형식교육: 국가학력 체계 안에 포함된 과정이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취득으로 이어지는데,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검정고시 등이 해당됨 *비형식교육: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하며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의 “학력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을 가리킴. 직장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 강좌, 스터디클럽, 개인과외 등이 포함됨
지표 측정방법	「평생학습실태」에서 매년 측정되는 평생학습 참여율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평생교육 참여율 = 25~64세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형식,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7~2012년
출처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지표 의의	25~64세 이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정도를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음. 평생교육은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여 웰빙에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는 개인을 기술변화에 대응하게 하여 노동력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 및 계속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6.1.4 학업중단율

영역명	교육(교육기회)
지표 정의	학업중단율은 중학생은 유예 및 면제자, 고등학생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사유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로 측정됨
지표 측정방법	학업중단율 = (중학생(유예 및 면제자)수 + 고등학생(제적·중퇴·휴학자)수) ÷ 중·고 재적 학생 수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8~2013년
출처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지표 의의	학업중단율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로 학교 밖 학생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업중단율 지표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함

6.1.5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영역명	교육(교육자원)
지표 정의	사교육에 소요되는 한달 평균 비용으로 측정됨. 사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의미함. 일반 교과와 예체능 과목별로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EBS 제외)를 포함함.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모두 포함함
지표 측정방법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 = 실질 사교육비 총액 ÷ 학생수 ÷ 12개월 *실질 사교육비 = 사교육 관련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7~2013년
산출가능 하위집단	성, 가구소득, 부모님 교육수준, 학교급
출처1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지표 의의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복지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증가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피해를지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반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감소하면 국민의 삶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공교육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개연성이 큼



6.1.6 PISA 백분위 순위

영역명	교육(교육성과)
지표 정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 수학, 읽기, 과학 각 영역별 백분위 순위의 평균(단, OECD 가입국가 중에서의 순위임) *PISA: OECD에서 주관하는 각 국의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읽기능력 측정시험,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PISA라고 약칭하며, '학업성취도국제 비교'라고도 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능력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함. 시험문제는 평가대상국에서 제출한 문항 가운데 이의제기가 없는 문항을 골라 출제함. 또한, 평가문항은 참여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연합체(consortium), 각 영역의 전문가집단, 각 참여국이 공동으로 개발함
지표 측정방법	OECD 가입국가 중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시험 수학, 읽기, 과학 각 영역별 백분위순위의 단순합산 평균 *백분위순위: 연도별로 다른 참여국가수를 표준화하기 위해 1~100으로 나라별 순위를 환산함(예, 20개국 중 1위의 경우 백분위 순위는 5위임) *PISA 순위는 95% 신뢰수준에서 국가별 최고 ~ 최하 추정 등수를 제공해 중위등수로 계산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3년, 2000~2012년
출처1	OECD, Education at a glance
지표 의의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교육기회와 교육자원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취로 나타나는 지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이며,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6.1.7 대졸생 취업률

영역명	교육(교육성과)
지표 정의	대졸생 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취업대상자는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와 군입대자, 외국인유학생 등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함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대학 등 포함
지표 측정방법	대학졸업생 취업률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교내취업자 + 해외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인정자 + 외국인유학생))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0~2013년
출처1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지표 의의	이 지표는 학교교육의 효과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대학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대학졸업자의 취업실태를 살펴 보면 고등교육체제의 인적자원 개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음. 또한 이 지표는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6.2.1 학교교육의 효과

영역명	교육(교육성과)
지표 정의	학교교육이 생활, 취업 및 직업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주관적 지표로, 생활, 취업 및 직업의 활용에 효과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됨 *만15세 이상 인구(학생)대상 *학생: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석.박사)에 재학, 휴학, 재수 중인 사람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학교교육의 효과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조사항목은 "귀하는 현재 학교교육의 생활, 취업 및 직업에 활용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생여부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현재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표시)"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 효과있다, ② 약간 효과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효과없다, ⑤ 전혀 효과없다, ⑥ 모르겠다로 조사되었음 학교교육의 효과 = '매우 효과있다'와 '약간 효과있다'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0~2014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객관적인 수준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인들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통해 학교교육의 성과측면을 포착하는 지표임. 재학여부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학교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임

6.2.2 학교생활 만족도

영역명	교육(교육성과)
지표 정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현재 학생(중학생~대학생)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임 *만15세 이상 인구(학생) 대상 *학생: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석.박사)에 재학, 휴학, 재수중인 사람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조사항목은 "귀하는 학교생활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학교생활"이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학교생활만족도 =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0~2014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주관적 차원에서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7.1.1 평균 여가시간

영역명	문화여가(여가시간 및 활용)
지표 정의	여가시간은 10세 이상 인구가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1일 평균 시간임. 여가시간에는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이용(대중매체),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기타 등의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포함함
지표 측정방법	통계청이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집계한 10세 이상 인구의 행위별 평균시간 자료 중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요일평균 사용시간을 이용하여 산출함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5년, 1999~2009년
출처1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지표 의의	여가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여가시간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생활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시함. 적절한 수준의 여가시간은 일 중심의 사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7.1.2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영역명	문화여가(문화활동)
지표 정의	만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1인당 국내여행(숙박 및 당일 여행)의 평균 참가일수로 측정함. 여행(또는 관광)은 행정구역상 현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을 의미함 *여기서 행정구역상 '현거주지' 및 '다른 지역'은 시/군단위를 의미. 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특/광역시 거주자일 경우, 거주하는 구를 벗어나 다른 구를 다녀온 여행도 포함 *여행기간(시간): 거주지(집)에서 출발하여 여행지 도착까지 소요시간, 각 여행지 체류 시간 및 여행지간 이동시간, 최종여행지에서 거주지(집)로 돌아오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
지표 측정방법	지난 1년간 1인당 국내여행(숙박 및 당일 여행)의 평균 참가일수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 지난 1년간 총 여행일수 ÷ 여행경험이 있는 응답자수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5~2013년
출처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지표 의의	여가시간 활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였는가와 관련해서 여가활동으로 가장 선호되는 여행을 얼마나 자주, 많이 향유하였는가 중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임

7.1.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영역명	문화여가(문화활동)
지표 정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조사대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함. 문화예술행사의 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을 포함함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조사항목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에 대해 관람경험 여부와 각각의 횟수로 조사되었음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률 = 공연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0~2013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국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본 지표로 문화예술 관람률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파악하며 문화예술 소비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문화예술 활동은 다양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인 수준에서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함

7.1.4 문화여가 지출 비율

영역명	문화여가(문화활동)
지표 정의	문화여가비 지출 비율은 가구의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됨. 문화여가비는 영상 음향기기(텔레비전 등),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영상음향 및 정보 기기 수리,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 화훼 관련 용품, 애완동물 관련 물품 등으로 구성되는 오락문화비임
지표 측정방법	문화여가비 지출 비율 = (월평균오락 · 문화비 ÷ 월평균 가계지출) × 100 *1인 이상 전국가구(농가제외) 대상, 명목금액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3~2013년
출처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표 의의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출을 가계지출에 대비하여 파악함으로써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제시함. 문화 여가비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자원으로써의 성격을 가짐



7.2.1 여가활동 만족도

영역명	문화여가(여가시간 및 활용)
지표 정의	여가만족도는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낸 지표로서, 국민 중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임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격년으로 조사되는 여가만족도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여가활동만족도 =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9~2013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여가활동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 다수의 경험적인 연구들이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여가 만족이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여가생활의 만족은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과 같은 다른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친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도 의미를 가짐

7.2.2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영역명	문화여가(여가시간 및 활용)
지표 정의	시간활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표로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함 *만10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생활시간조사」에서 5년 주기로 조사되는 시간부족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조사항목은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 범주는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 '항상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5년, 1999~2009년
출처1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지표 의의	여가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의 생활시간(시간압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8.1.1 가족접촉 빈도

영역명	가족공동체(가족관계)
지표 정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현재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횟수로 측정됨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가구주와 배우자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부모님과의 교류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조사 항목은 "(따로 사는 경우) 귀하의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십니까?"로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각각에 대해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 두 번, ③ 한 달에 한 두 번, ④ 1년에 몇 번, ⑤ 거의 하지 않음으로 조사되었음 가족접촉빈도 = 전화통화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한 사람의 비율 합산(가구주와 배우자 평균)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8~2014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얼마나 가족구성원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8.1.2 한부모 가구 비율

영역명	가족공동체(가족형태)
지표 정의	한부모 가구 비율은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율임
지표 측정방법	추계가구를 통해 집계된 세대구성 및 가구주의 가구유형별 추계가구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한부모 가구 비율 = ((부+자녀)가구수 + (모+자녀)가구수) ÷ 일반가구수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0~2013년
출처1	통계청, 추계가구
지표 의의	한부모 가구는 사별, 이혼, 미혼모(부), 별거, 유기 등의 원인으로 형성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해서 빠르게 양산되는 추세임. 한부모 가구구성원은 소득의 상실에 따른 빈곤의 위험, 경제활동과 가사 및 자녀양육의 병행으로 인한 한부모의 역할 과중, 사회관계망 제한 등의 현실적 문제를 복합적으로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한 위치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함.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의 증가는 해당 가족의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8.1.3 독거노인 비율

영역명	가족공동체(가족형태)
지표 정의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구의 비율로 측정됨
지표 측정방법	독거노인 비율 = (65세 이상 1인가구 ÷ 65세 이상 노인수)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2013년
출처1	통계청, 추계가구 및 추계인구
지표 의의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혼자사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관계 측면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 측정에 중요한 지표임

8.1.4 자살률

영역명	가족공동체(사회적 관계)
지표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로 측정
지표 측정방법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3~2013년
출처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지표 의의	자살 자체는 개인적 현상이지만,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며, 특히 사회적인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 자살률은 높아짐. 따라서 자살률은 한 사회의 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볼 수 있음

8.1.5 사회적 관계망

영역명	가족공동체(사회적 관계)
지표 정의	사회적관계망은 조사대상인구 중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됨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사회적 관계망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항목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제시된 상황은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지인의 존재 여부와 함께 몇 명인지로 조사되었음 사회적관계망 = 각 상황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단순평균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9~2013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유무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도 특히 인적, 물질,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망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사회의 질을 높여줌

8.1.6 사회단체 참여율

영역명	가족공동체(공동체 참여)
지표 정의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됨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인 경우 중요도순으로 복수응답케하였으며, 단체에 단순히 가입만하고 활동하지 않은 상태는 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온라인상 활동도 단체참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단체참여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조사항목은 "지난 1년 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중 어느 단체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3순위까지 조사되었음 사회단체참여율 = 각각의 사회단체 중 하나라도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는 비율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1999~2013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사회단체 참여는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결합하여 활동하는 정도를 보여주며, 최근 공동체적 삶의 기초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형성의 기초로 볼 수 있음.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율이 높을 수록 사회의 질이 좋은 것으로 여겨짐



8.2.1 가족관계 만족도

영역명	가족공동체(가족관계)
지표 정의	조사대상인구 중 본인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됨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조사되는 '가족관계 만족도'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문항은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가족관계 만족도 =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1998~2014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인의 하나로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하며,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속감과 유대, 친밀감의 원천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소망함.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가족생활의 질과, 더 나아가 구성원의 삶의 질의 중요한 단면의 현주소를 보여줌

8.2.2 지역사회 소속감

영역명	가족공동체(공동체 참여)
지표 정의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통합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정도로 측정됨 *만19세~69세 이하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지역사회 소속감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나는 현재 살고있는 지역(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고 있으며, 응답범주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지역사회 소속감 =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3년
출처1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지표 의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9.1.1 투표율

영역명	시민참여(정치참여)
지표 정의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선거인이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함. 만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지방선거의 경우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선거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도 선거를 할 수 있음.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금지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자, 선거법 등은 선거권을 제한받음
지표 측정방법	대통령 선거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5년, 1987~2012년
출처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지표 의의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대표자의 선출이나 정치적 및 정책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의미함.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임.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지표라고 할 수 있음

9.1.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영역명	시민참여(시민적 의무)
지표 정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됨. 2가지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조사하였음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조사되는 '자원봉사활동'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 문항은 "지난 1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횟수 및 1회 평균 활동시간을 모두 기입해주시시오"로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각각의 항목(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환경보전/범죄예방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재해지역 및 시설 복구 관련,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에 대한 횟수와 1회 평균시간으로 조사되었음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1999~2013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자원봉사는 정부의 강제나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이타주의의 발현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의 공공선이 증대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역시 만족감과 시민의식이 고양되는 결과를 가져옴.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9.2.1 정치관심

영역명	시민참여(정치참여)
지표 정의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치현안에 대한 인지 정도로 측정됨 *만19~69세 이하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정치참여 부문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로 질문되었고, 세부항목은 3)"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범주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한다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정치관심 = 5점 만점의 평균값으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3년
출처1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지표 의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정도를 보여주는 주관적 지표 중 하나로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높은가를 측정하는 지표임

9.2.2 정치 효능감

영역명	시민참여(정치참여)
지표 정의	개인의 행위가 지역의 정치 및 행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측정됨 *만19~69세 이하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정치참여 부문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 항목은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로 질문되었고, 각 항목은 1)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2)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로 응답범주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한다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정치효능감 = 5점 만점(역코딩)의 평균값에 대해 두 항목의 단순평균으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3년
출처1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지표 의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주관적 지표 중 하나로 정치적인 행동과 참여가 실제 정치 및 행정과정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효능감이 높을수록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9.2.3 시민적 덕목

영역명	시민참여(시민적 의무)
지표 정의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의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측정(7점 척도 8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만19~69세 이하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정치참여 부문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2)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3)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4)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5) 사회 또는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6)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7)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8) 국가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 한다"라고 질문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⑦ 매우 중요하다는 7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시민적덕목 = 8개 항목(7점 만점 평균값)에 대한 평균점수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3년
출처1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지표 의의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적 덕목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정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사회의 질 지표임

9.2.4 부패인식지수

영역명	시민참여(시민적 권리)
지표 정의	공공 및 정부 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로 측정됨.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음
지표 측정방법	월드뱅크 등 13개 국제기구의 국가 분석전문가들에게 각 국가별로 공공부문 부패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조사함. 0~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것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임. 주요 질문내용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정부예산 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설명할 수 없는 특수공무 비용이 존재하는가?", "공공재원에 대해 감사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하는가?",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한 내부고발자, 언론인 등에 대한 법적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등임 부패인식지수 = 10점 만점 척도의 평균값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9~2013년
출처1	국제투명성기구(TI)
지표 의의	정부의 부패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주로 활용하며,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은 정부가 얼마나 소수의 부패한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줌.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잘 운영되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음



9.2.5 대인신뢰

영역명	시민참여(신뢰)
지표 정의	조사대상자 중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함 *만19~69세 이하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신뢰 부문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 항목은 "귀하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별로 믿을 수 없다, ③ 약간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대인신뢰 = '매우 믿을 수 있다'와 '약간 믿을 수 있다'의 응답비율을 합산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3년
출처1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지표 의의	대인신뢰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일반적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범위가 좁아질 뿐 아니라 서로 불신하는 집단들끼리 협동하기보다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이 번성하며 사회적 유대 또한 돈독해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음

9.2.6 기관신뢰

영역명	시민참여(신뢰)
지표 정의	조사대상자들이 주요 사회기관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됨 *사회기관: 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계(대학등), 의료계(병원등), 대기업, 종교계(교회, 성당, 사찰 등), 금융기관(은행 등) *만19~69세 이하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신뢰부문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항목은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별로 믿을 수 없다, ③ 약간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기관신뢰 = '매우 믿을 수 있다'와 '약간 믿을 수 있다'의 응답비율을 합산한 16개 항목의 평균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3년
출처1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지표 의의	사회의 여러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또한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 기관 및 제도의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10.1.1 강력범죄 발생률

영역명	안전(범죄)
지표 정의	사회안전 중 범죄안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범죄 중 피해나 두려움 정도가 가장 높은 강력범죄의 인구수 대비 발생건수로 집계 *강력범죄: 흉악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폭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표 측정방법	강력범죄 발생률 = (강력범죄건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2~2012년
출처1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지표 의의	강력범죄는 가장 대표적으로 안전영역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이 좋은 삶이고 안전한 사회임.

10.1.2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영역명	안전(범죄)
지표 정의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 *범죄: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폭력범죄, 소매치기, 일반절도, 손괴, 사기, 주거 침입범죄 등
지표 측정방법	「범죄피해실태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조사항목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각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범죄피해율 = 각 유형의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출처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실태조사(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표 의의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범죄피해 경험률에 대한 자료로 실생활에서의 범죄발생빈도를 파악할 수 있음



10.1.3 도로 사망률

영역명	안전(사고)
지표 정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교통사고 사망자 기준: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 교통사고접수 → 교통사고조사 → 통계원표입력(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 경찰청
지표 측정방법	도로 사망률 = (교통사고 사망자수 ÷ 인구수) × 100,0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1~2013년
출처1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지표 의의	우리나라의 도로 사망률이나 보행자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거리보행 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10.1.4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영역명	안전(사고)
지표 정의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로 만14세 이하의 십만명당 사고 사망자수로 측정됨 *안전사고: 운수사고(V01-V99), 추락(W00-W19), 익사(W65-W74), 화상(X00-X09), 중독(X40-X49), 기타(Re.V01-Y89)
지표 측정방법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14세 이하 안전사고사망자수 ÷ 14세 이하 주민등록 연앙인구) × 100,0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3~2013년
출처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지표 의의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10.1.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영역명	안전(사고)
지표 정의	<p>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 상담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건수를 아동인구 대비 하여 측정</p> <p>*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p>
지표 측정방법	$\text{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text{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건수} \div \text{18세 미만 추계인구}) \times 100,0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1~2013년
출처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지표 의의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10.1.6 산업재해율

영역명	안전(사고)
지표 정의	<p>산업재해율은 산재적용 대상 근로자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재해자)의 비율로 측정됨</p> <p>*산재적용 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단, 개인이 행하는 농업, 임업(별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 이상,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제외)</p>
지표 측정방법	$\text{산업재해율} = (\text{산재로 인한 재해자수} \div \text{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수}) \times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2~2013년
출처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지표 의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측정함으로써 근무환경의 안전측면을 측정하는 지표임.



10.1.7 화재 발생 건수

영역명	안전(사고)
지표 정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써 화재예방을 위한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집계 *화재: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지표 측정방법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4~2013년
출처1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
지표 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

10.2.1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영역명	안전(범죄)
지표 정의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회전반에 대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임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항목으로 측정함. 조사항목은 "우리 사회가 다음의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인 사회안전"이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 안전, ② 비교적 안전, ③ 보통, ④ 비교적 불안, ⑤ 매우불안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의 응답비율을 합산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8~2014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감 수준과 그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게 됨. 사회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지표의 파악이 필요하므로,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추세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10.2.2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영역명	안전(범죄)
지표 정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집 주변 야간 단독보행 시 두려운 곳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됨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를 묻는 항목으로 측정함. 조사항목은 "집 근처에는 밤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예, 아니로'로 조사됨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두려운 곳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8~2014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집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평가를 파악할 수 있음

11.1.1 에너지 빈곤층 비율

영역명	환경(에너지)
지표 정의	적정 난방수준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구경상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난방비)로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로 측정함 *광열비(L6):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차량용 연료는 제외)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연료,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경유 및 기타연료비가 해당됨
지표 측정방법	에너지빈곤층비율 = (경상소득에서 광열비(L6)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 ÷ 전체가구) × 100 *1인 이상 전국가구(농가제외)대상, 명목금액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
출처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표 의의	에너지는 필수재 성격으로 가격인상에 비례한 소비저하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



11.1.2 미세먼지 농도

영역명	환경(대기)
지표 정의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평균하여 측정함
지표 측정방법	PM10(Particle Matter 10 μ m, 직경 10 μ m 이하 먼지농도) 미세먼지농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서 인구 가중평균 연간농도 (micrograms/cubicmeter)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2012년
출처1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지표 의의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인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의 악화,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서,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으며, 최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 심각성과 비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1.1.3 하수도 보급률

영역명	환경(물)
지표 정의	하수도 보급률은 총인구 중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하수처리 인구의 비율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관할지역 내의 하수처리장은 없지만 타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는 경우의 처리인구와 하수처리 시설이 아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하수처리가 이루어지는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
지표 측정방법	하수도보급률 = (하수처리구역내 인구 ÷ 총인구)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8~2012년
출처1	환경부, 하수도통계
지표 의의	매년 하수도 보급률을 통해 하수도 시설 투자현황 시계열분석 및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시 활용 하수도 보급률은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혜인구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혜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11.1.4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영역명	환경(폐기물)
지표 정의	폐기물의 재활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일반폐기물 중 발생량 대비 재활용된 양의 비율로 측정
지표 측정방법	폐기물 재활용 비율 = (일반폐기물 재활용량 ÷ 일반폐기물 발생량) x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2~2012년
출처1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지표 의의	재활용률이 높아질수록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매립과 소각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폐기물 재활용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됨

11.1.5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영역명	환경(기후변화)
지표 정의	지구온난화 지수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GDP 대비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 *온실가스: 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CO ₂), 메탄(CH ₄), 아산화질소(N ₂ 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 ₆)의 6개물질이 온실가스로 정해져 있음. 6개 온실가스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정도가 다른데,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를 1로 했을 때 다른 온실가스들의 온실효과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 지구온난화 지수임
지표 측정방법	GDP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6개 온실가스별 연간 배출량 × 온실가스별 지구 온난화 지수 / 실질GDP(2005년 기준) *지구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 = 1, 메탄 = 21, 아산화질소 = 310, 수소불화탄소 = 150 ~ 11,700, 과불화탄소 = 6,500 ~ 9,200, 육불화황 = 23,9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0~2011년
출처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2014)
지표 의의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환경 문제로,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미 국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빙하감소,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한반도에도 잦은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을 야기하고 있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인간의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특히 에너지 사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11.1.6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영역명	환경(환경의 질)
지표 정의	도시지역 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으로 측정 *도시공원: 도시자연 경관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
지표 측정방법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지역 공원면적 ÷ 도시지역의 총인구 *도시공원 조성면적: 도시·군계획 시설인도시 공원으로 결정된 후 조성된 도시공원 면적 *도시지역 인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인구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2013년
출처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지표 의의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서비스의 양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11.2.1 기후변화 불안도

영역명	환경(기후변화)
지표 정의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인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느끼는 불안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는 환경문제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조사항목은 "귀하는 환경변화와 관련된,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약간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기후변화불안도 = '매우 불안하다'와 '약간 불안하다'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8~2014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기후변화는 전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정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함

11.2.2 체감 환경 만족도

영역명	환경(환경의 질)
지표 정의	체감 환경 만족도는 조사대상자 중 현재 살고있는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체감 정도로 측정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조사되는 '현재 체감 환경'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문항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의 5가지 영역별" 로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됨 체감환경만족도 = '매우 좋다'와 '약간 좋다'를 합산한 응답비율의 5개 항목의 단순평균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10~2014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국민의 웰빙 또는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주관적 지표도 매우 중요하며, 국내에서 이러한 주관적 지표를 대표하는 것이 환경 체감도와 국민의식조사이다. 환경 체감도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5개 분야(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음

12.2.1 삶에 대한 만족도

영역명	주관적 웰빙
지표 정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 *만19세~69세 이하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역능성 부문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 항목은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 매우 만족한다의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삶에 대한 만족도 = 11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산출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3년
출처1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지표 의의	주관적 삶의 만족(subjective wellbeing)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도 개인 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 하지만 삶의 질이 다차원적이고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만족은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12.2.2 긍정/부정 정서경험의 균형

영역명	주관적 웰빙
지표 정의	개인들이 느낀 과거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지에 대한 것으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과 함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비율로 측정 *만19~69세 이하 인구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년 조사되는 역능성 부문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 항목은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0. 전혀 그렇지 않았다 ~ 10. 매우 그렇다의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정서경험의 균형 = 행복, 근심걱정(역코딩), 우울(역코딩)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3년
출처1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지표 의의	가까운 과거에 경험한 정서경험(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균형으로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더 행복한 삶을 의미함